

Coa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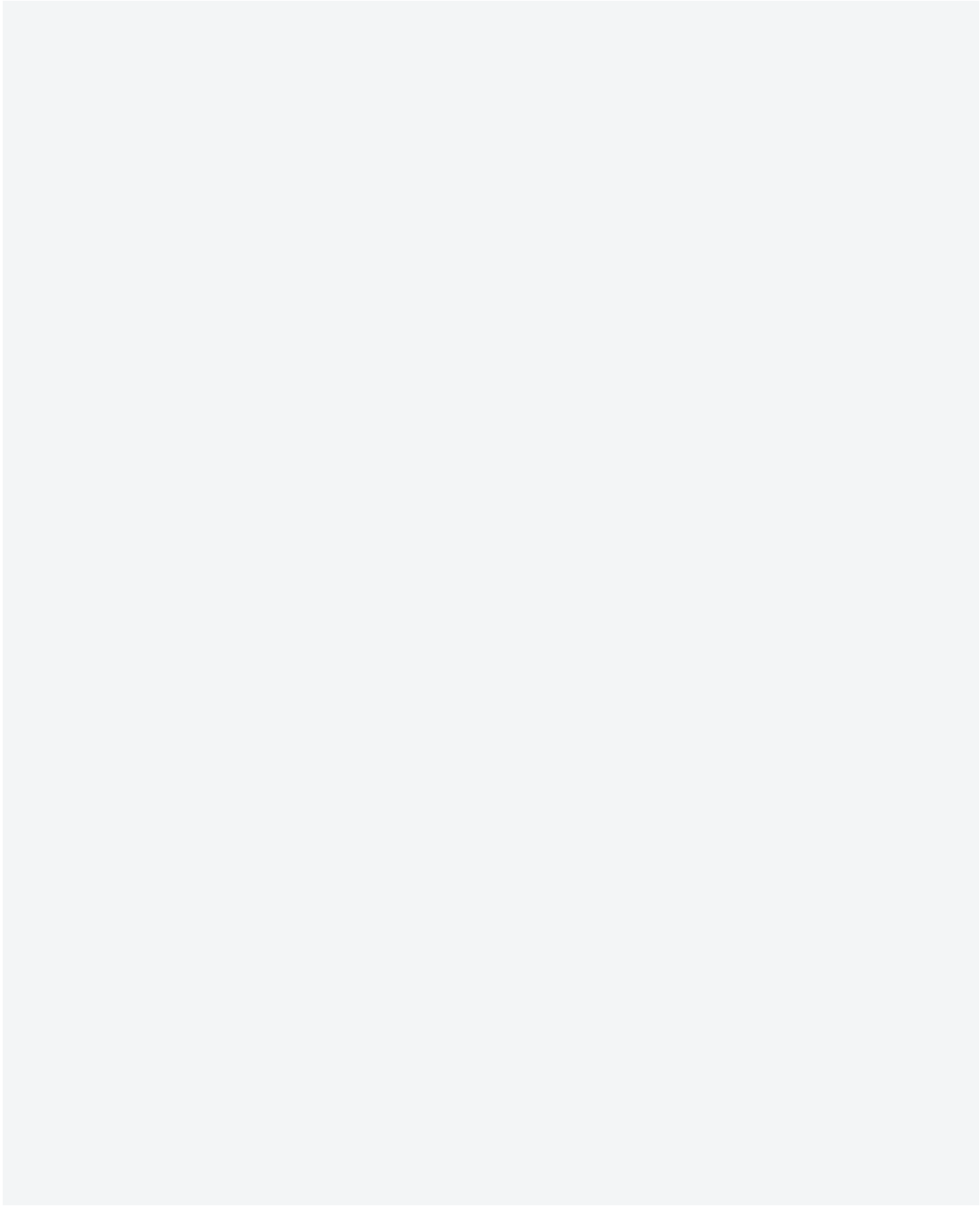
2020 AUGUST Vol.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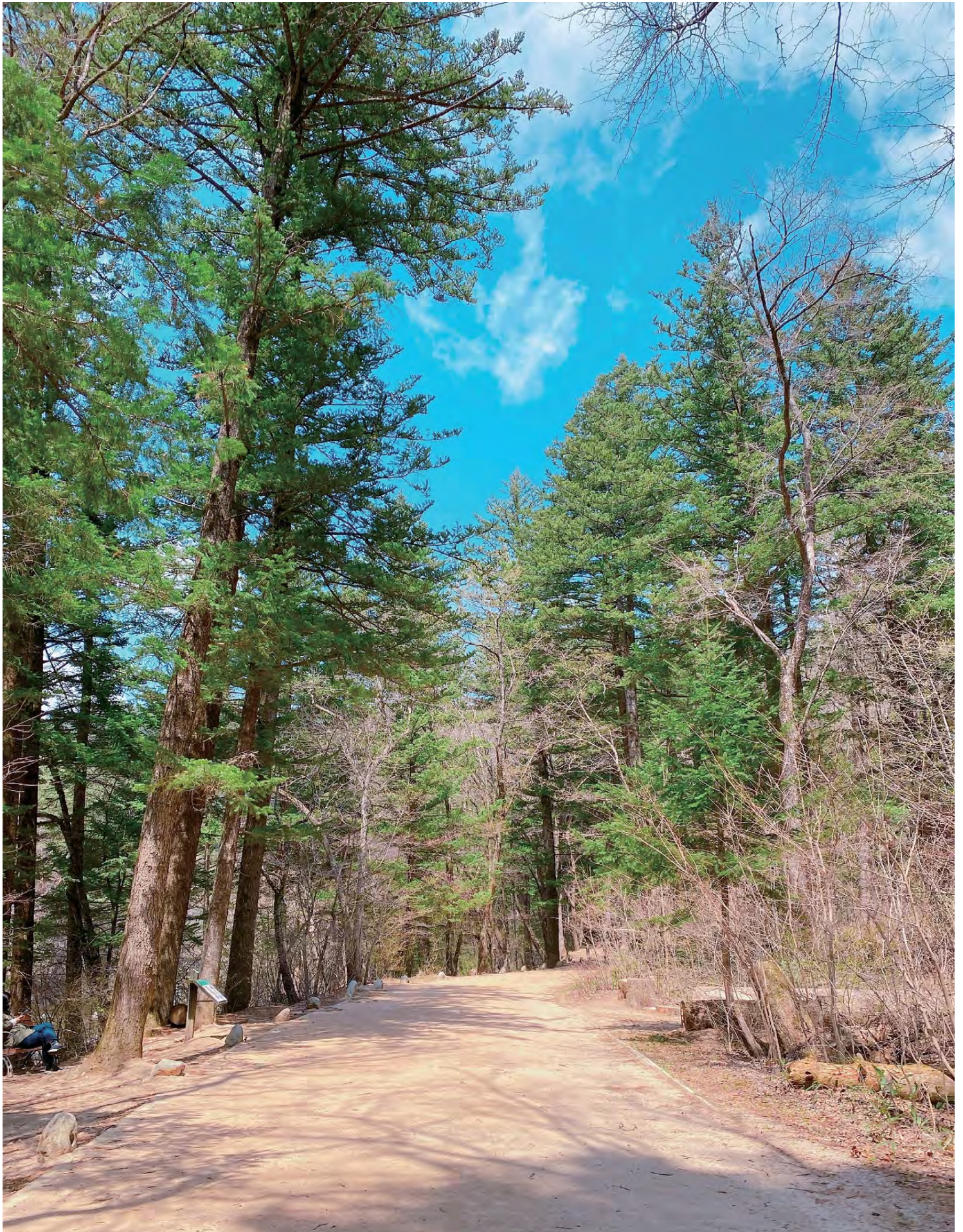
People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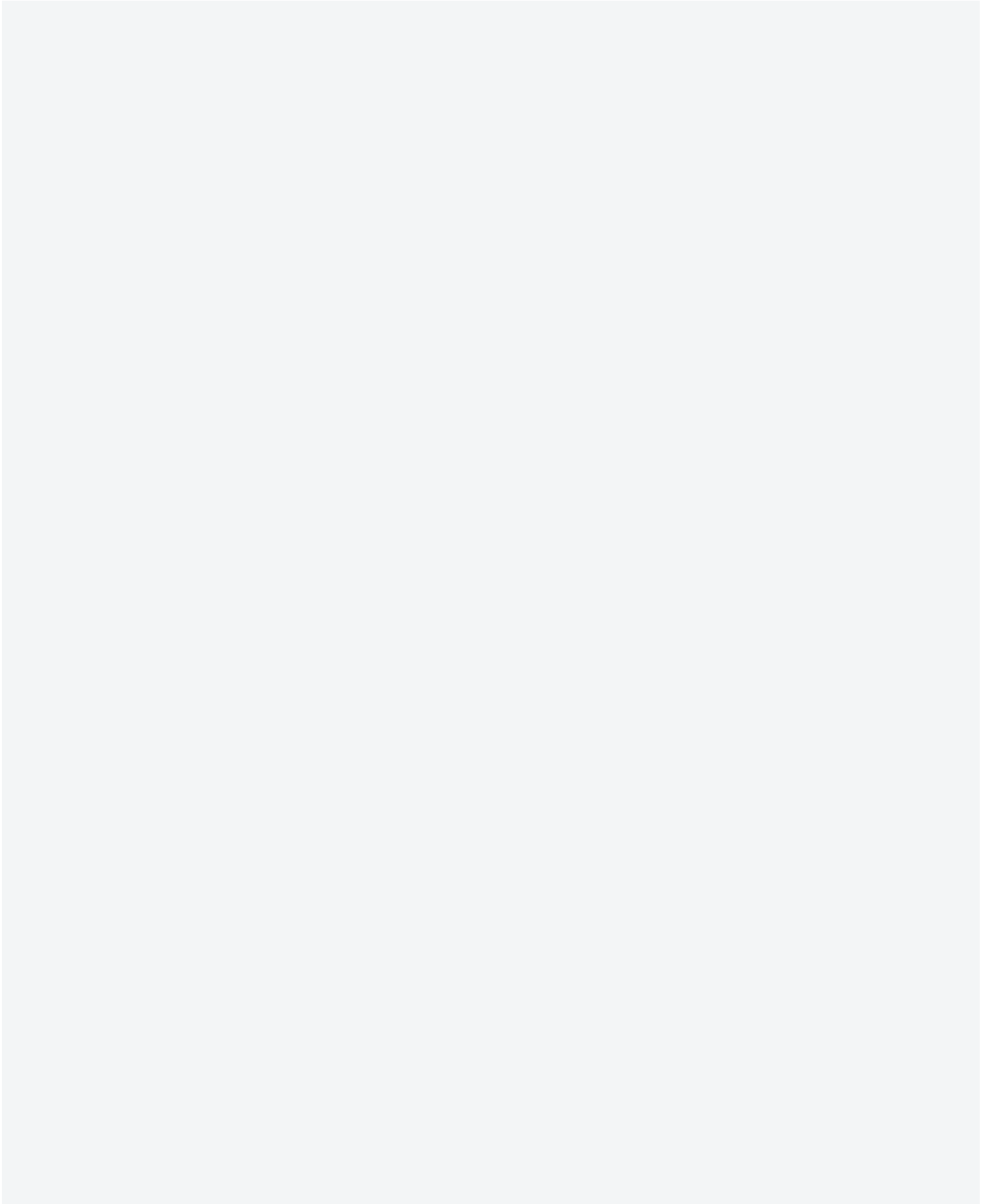
강용수 코치협회회장

5000만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Coaching

CONTENTS

2020 AUGUST VOL. 34

PEOPLE INTERVIEW

- 02 인사말_ 5000만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 04 추천사_ 국민의 마음건강운동에 앞서는 한국코치협회를 꿈꾸며
- 06 인터뷰_ 전문영역으로 나아가는 코칭의 준비물 Philsophy와 Story
- 08 인터뷰_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 코치들의 자리 잡기



0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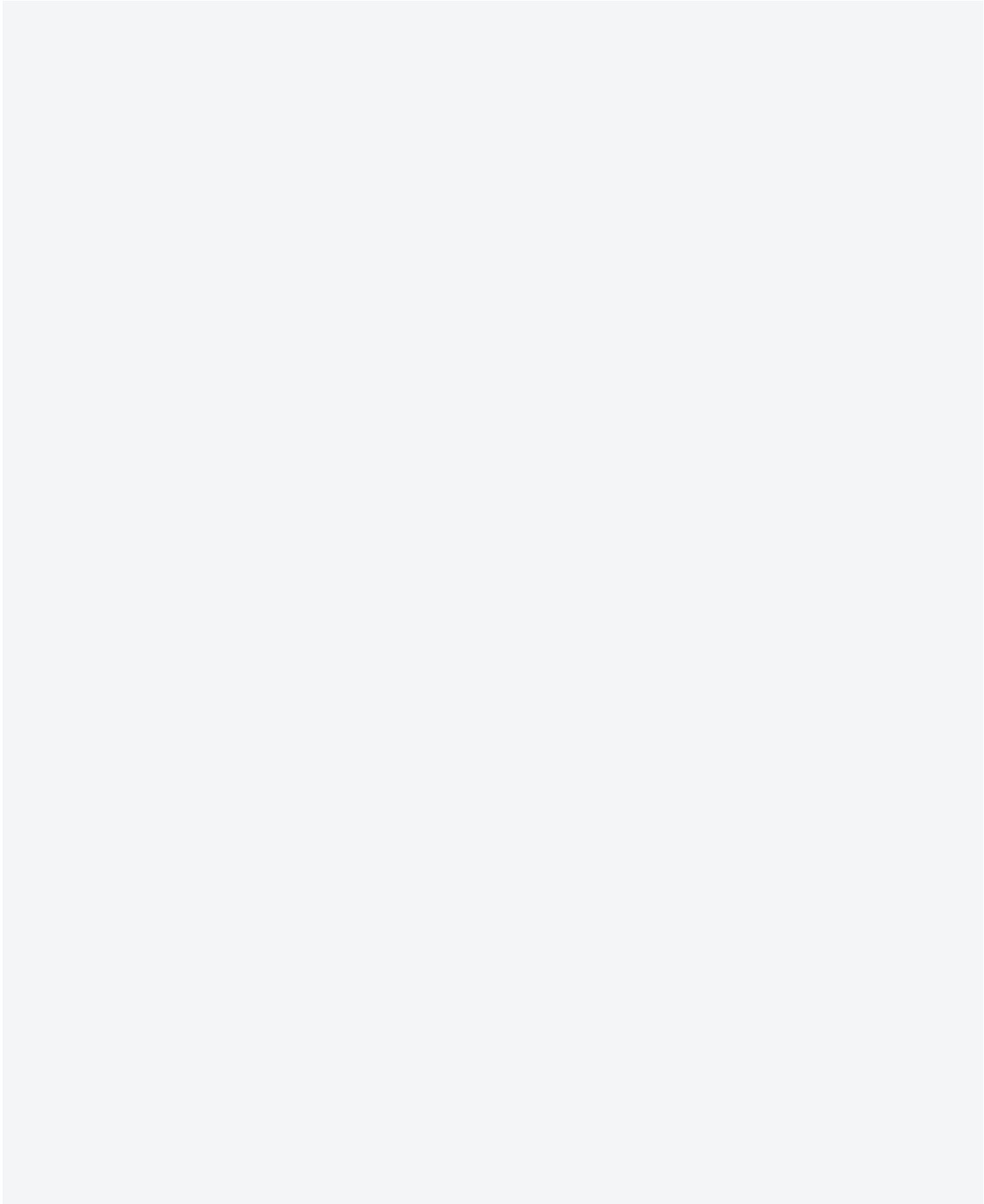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16

ZOOM IN ISSUE

- 10 KCA news_ 기대되는 코치들이 상호교류와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 12 special coaching column_ 1인기업 코치 성장프로그램 COVID19,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찾아온다
- 14 coaching issue inside_ 코치 자격 국가공인화, 이슈 인사이드
- 16 coaching in_ 코웨이 조직의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변화의 시작, 코칭
- 20 coaching committee_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한 코칭이 되길 바라는, 홍보위원회
- 22 coaching blog journalist_ 세상 속 다양한 주제와 코칭을 결합하여, 코칭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 24 coaching branch office_ 대전지역 코치들의 플랫폼과 교류의 장, 한국코치협회 대전지부

(사)한국코치협회 협회지 <Coaching> 2020년 August (통권 제34호) 발행처 (사)한국코치협회(02-563-8798, www.kcoach.or.kr)
 발행일 2020년 8월 13일 발행인 강용수 편집인 김철 편집장 김셋별 디자인 옛지피앤디



coaching essay



(사)한국코치협회 간단한 소개

첫째, 현재 KAC, KPC, KSC 자격이 나뉘어 있고 약 7,500명의 인증코치가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코치를 인증하는 기관이고, 또 이러한 코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코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용되는 코칭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둘째, 배출된 코치들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칭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코치들 간의 교류 및 코칭기법 개발과 더불어 다른 학문과 접목하는 월례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셋째, 코칭이 대한민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코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치협회의 비전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학교,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코칭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코치협회의 주요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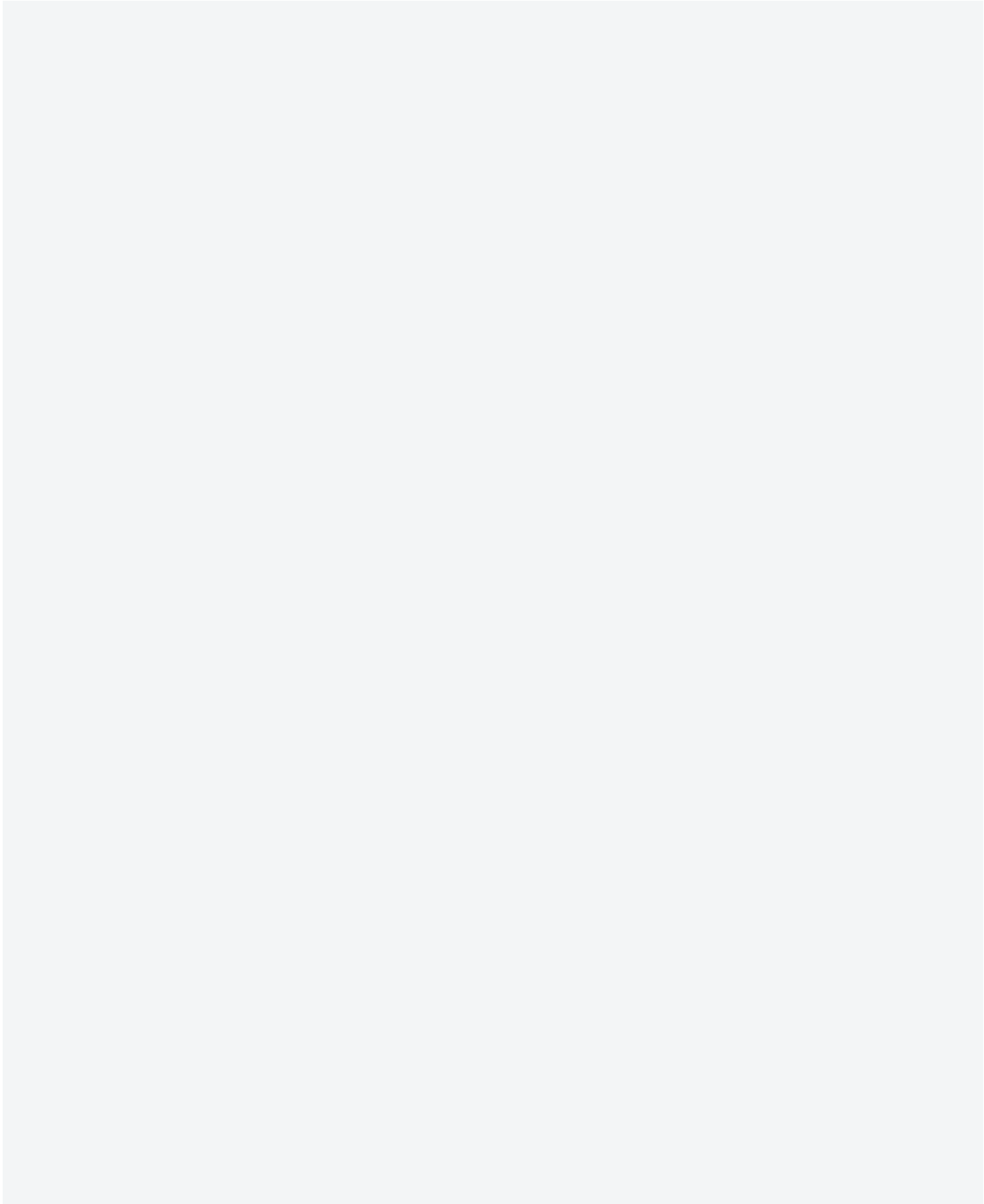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코칭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치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셀프코칭의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코치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또한 민간 자격인 협회 자격증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된다면 학교나 정부기관 등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現한국코치협회 회장 강용수.

2020년의 후반에 주요사안을 모두 이루었을 때 회장님은 어떤 점이 달라져 있길 기대하나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많은 코치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가정, 학교, 기업 등 우리 사회의 다각도에서 코칭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급격히 등장한 언택트 시대에 코치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코치들과 사회 전반의 모습이 모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교육이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치들이 이러한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이전부터 잘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칭이라는 것이 늘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화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과 코로나의 문제가 결합하며 '인간'에 대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존재(Being)를 다루면서, 존재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코칭적인 관점과 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4계급으로 나누면, 원격근무가 가능한 근무자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코치들의 모습이 급격한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칭의 대중화를 위해 코치들이 해야 할 노력?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코칭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적인 기본원리요!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스스로 가지고 있다.

전문적 역량을 가진 코치가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된 의식이나 능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치들이 자신이 잘하는 역량과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전문성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 영역에서 코칭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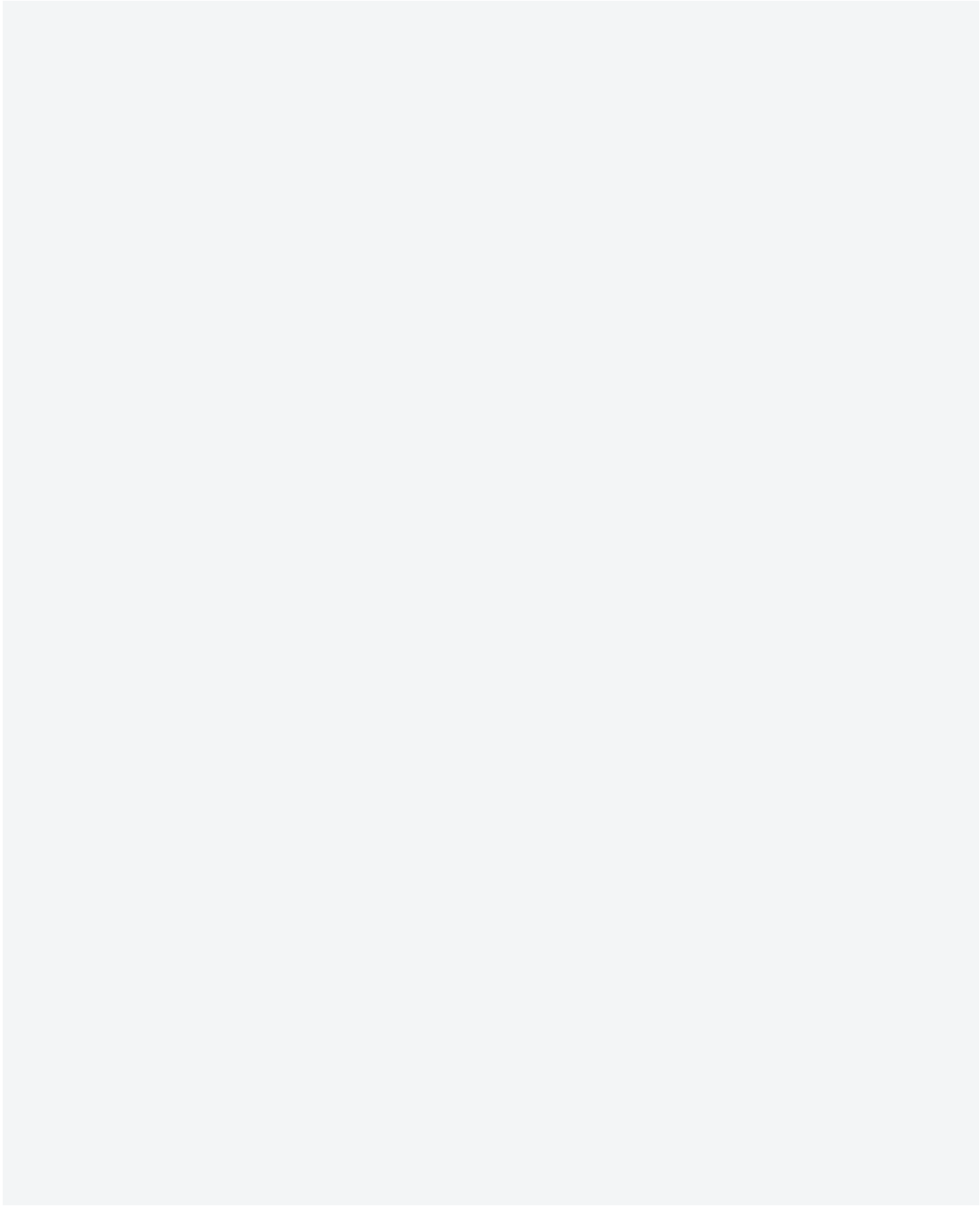
타인의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끌어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면 코칭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에 관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사)한국코치협회의 협회원들에게 한마디

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우리 협회는 결국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고요, 회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회 활동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있고, 위원회 활동, 취미스쿨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코치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면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코치생활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칭을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훈련하고 배우고 역량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생활이 변화하고 답답해졌지만, 이런 때에 다음을 위해 또 준비하는 코치들이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이 최고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





coaching essay

“국민의 마음건강운동에 앞서는 한국코치협회를 꿈꾸며”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한국코치협회의(이하 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김재우 코치와의 만남. 2010년부터 이어온 한국코치협회의 발자취와 2020년,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코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글, 사진 김셋별(KPC,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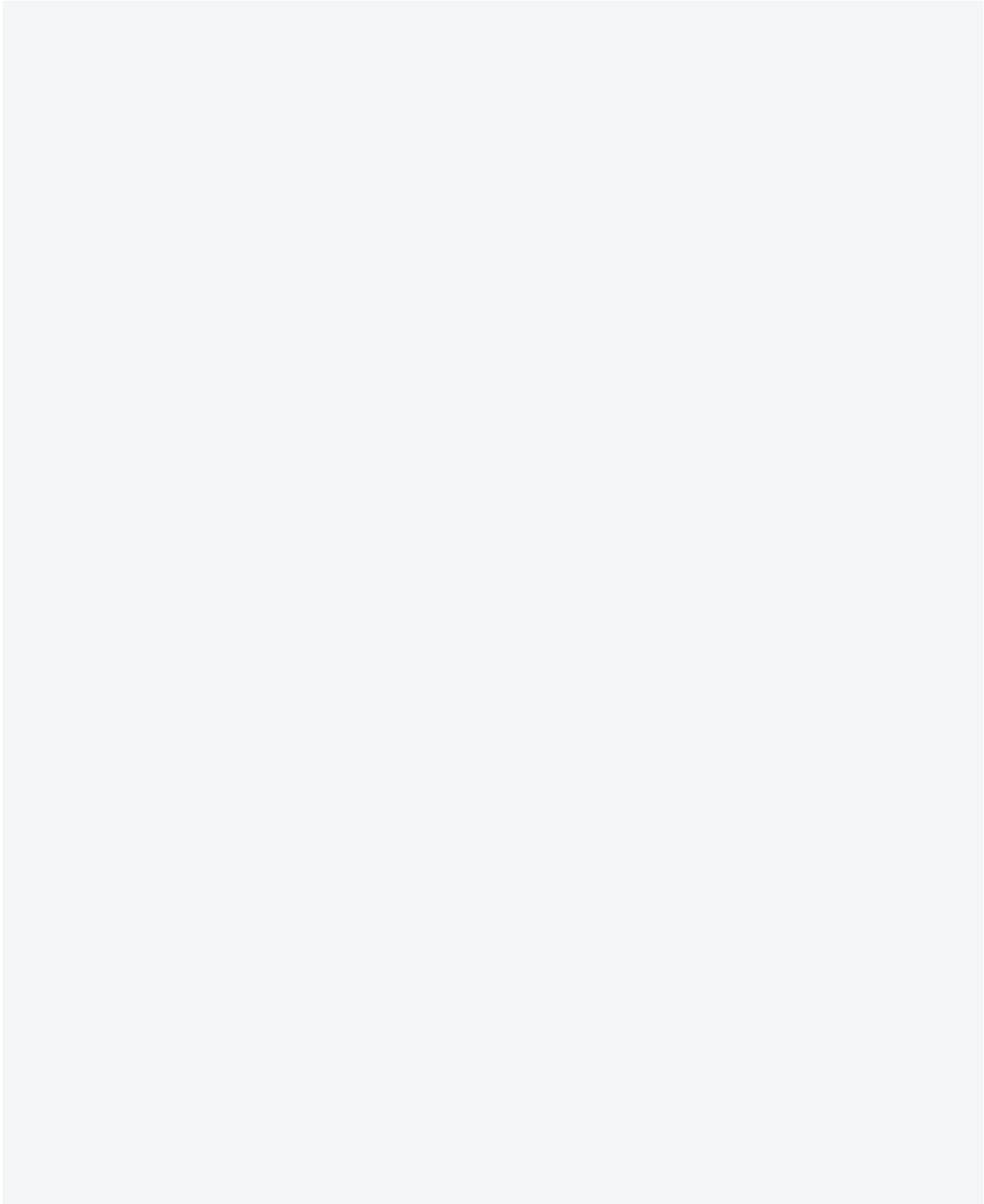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사)한국코치협회가 협회지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협회지의 재발행을 축하합니다! "One sauce multi use" 협회지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함께 만들어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코치협회 회장을 하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었나요?

10년 전, 당시 한국은 존재라는 것에 더 무감각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Fast follower!' 빠른 추격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Holistic! 우리는 모든 존재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항상 같은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칭의 앞길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

항상 창조성에 관한 생각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늘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무엇이 가장 즐거웠니?”라는 질문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라고 질문합니다.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주는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급격히 등장한 언택트 시대에 코치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언택트 시대를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4차 혁명의 태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칭을 받고 코치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이 굉장히 소비적이기도 해요. 시간을 덜 쓰는 고객, 시간을 덜 쓰는 코치! 우리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효율적인 코칭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로 가기 위한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쌍방의 소모적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더 경제적인 코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사)한국코치협회에게 기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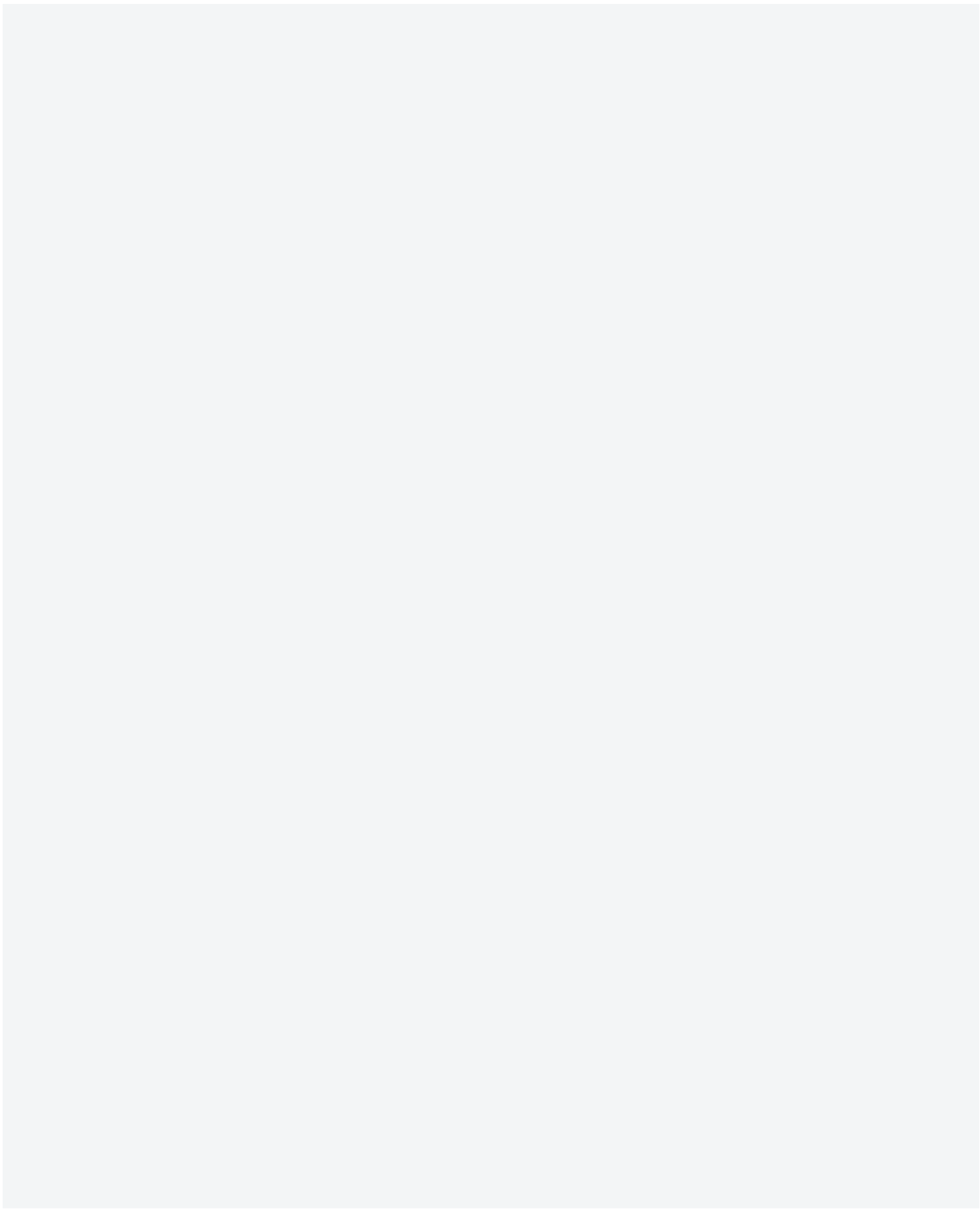
협회는 앞으로 어떠한 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코칭운동을 전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치들이 모두 국민운동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강력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코칭국민운동에 주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또 그러한 코칭국민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코치들이 더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항상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한국코치협회의 회원들에게 한마디!

코칭이라는 놀라운 장르는 '도구적 인간관'에서 '존재론적 인간관'으로의 전환입니다. 만약 존재론적 인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국민은 더 행복해지고, 코치는 더욱더 훌륭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코칭에 대한 저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누고 싶습니다! ☺



people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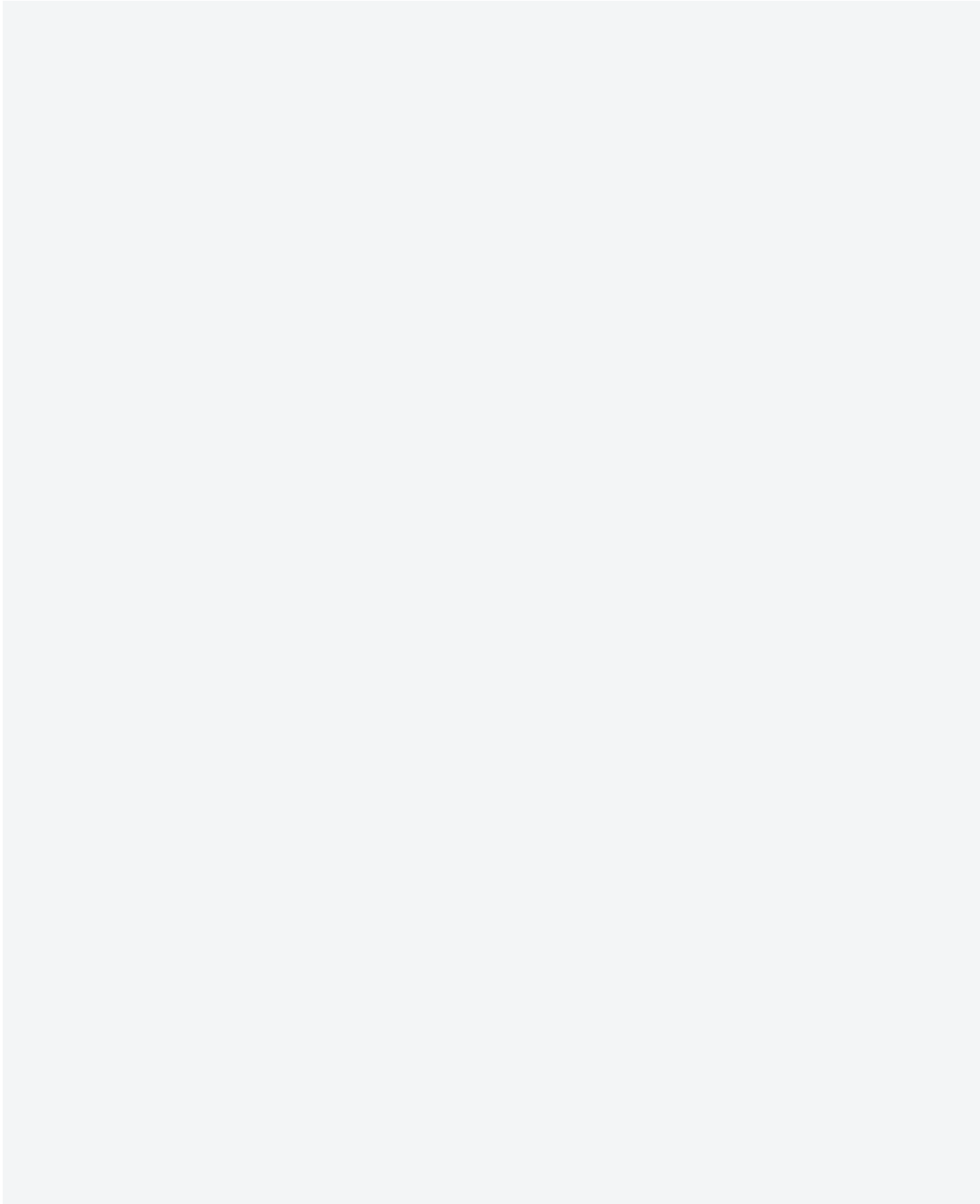
박정영 코치
 - CIT코칭연구소 대표
 - 한국리더십센터/
 코칭전문센터 교수
 -KSC/MCC



전문영역으로 나아가는 코칭의 준비물 Philosophy와 Story
**“정말 전문적인 코치가 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CIT코칭연구소의 대표이자, 코칭살롱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중인 박정영코치를 만났다.
 배가 아프면 우리동네의 내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땐
 코칭연구소를 찾아보는 날들이 오길 바라는 박정영 대표와의 유쾌한 만남.

글 김셋별(KPC,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사진 김철(한국코치협회 이사, 홍보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코치협회가 협회지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국코치협회의 협회지가 다시 지면으로 재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웹으로만 발행되는 것도 정말 신선하고 좋은 시도였는데, 더 많은 코치님들을 찾아뵙는 데 지면 발행이 정말 좋은 경로가 될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정영 대표가 코칭을 처음 만난 시점?

2002년쯤일 거예요. 한국 코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처음 코칭을 접했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 가슴을 파고드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A Coach does not work, A Coachee does work!” 제가 하던 컨설팅은 답을 주는 일이었는데, 코칭은 코치이가 해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코칭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코칭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코치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Philosophy와 Story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코칭에 관한 철학과 신념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코치는 코치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현하는 모습과

과정을 좋은 Story로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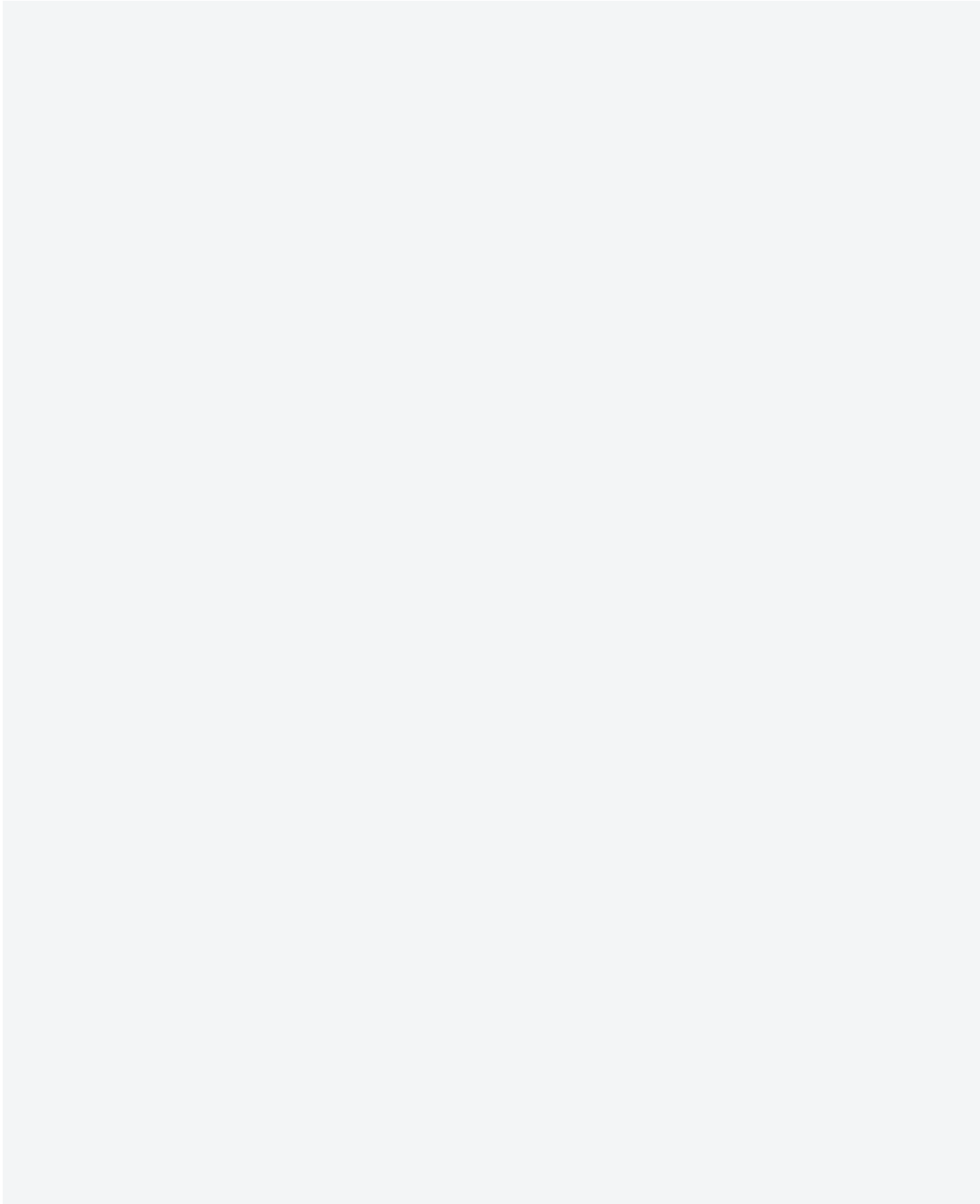
많은 사람이 코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박정영의 코칭살롱'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에요. 전 국민이 '1인당 1코치'를 찾게 되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사)한국코치협회의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 분이 제게 질문합니다. 코칭의 시작이 이미 Red ocean 아닌가요? 코칭은 이제 막 Ocean이 펼쳐지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예측이 불가하고 상상 그 이상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코칭을 수용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에 있어요.

더는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과 개인들이 점차 코칭을 원하고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우리는 코칭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코치가 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





people interview

안남섭 코치

- 現미래준비 이사장
- 現동화세상에듀코 고문코치
- 現한국코칭학회 이사
- 前한국코치협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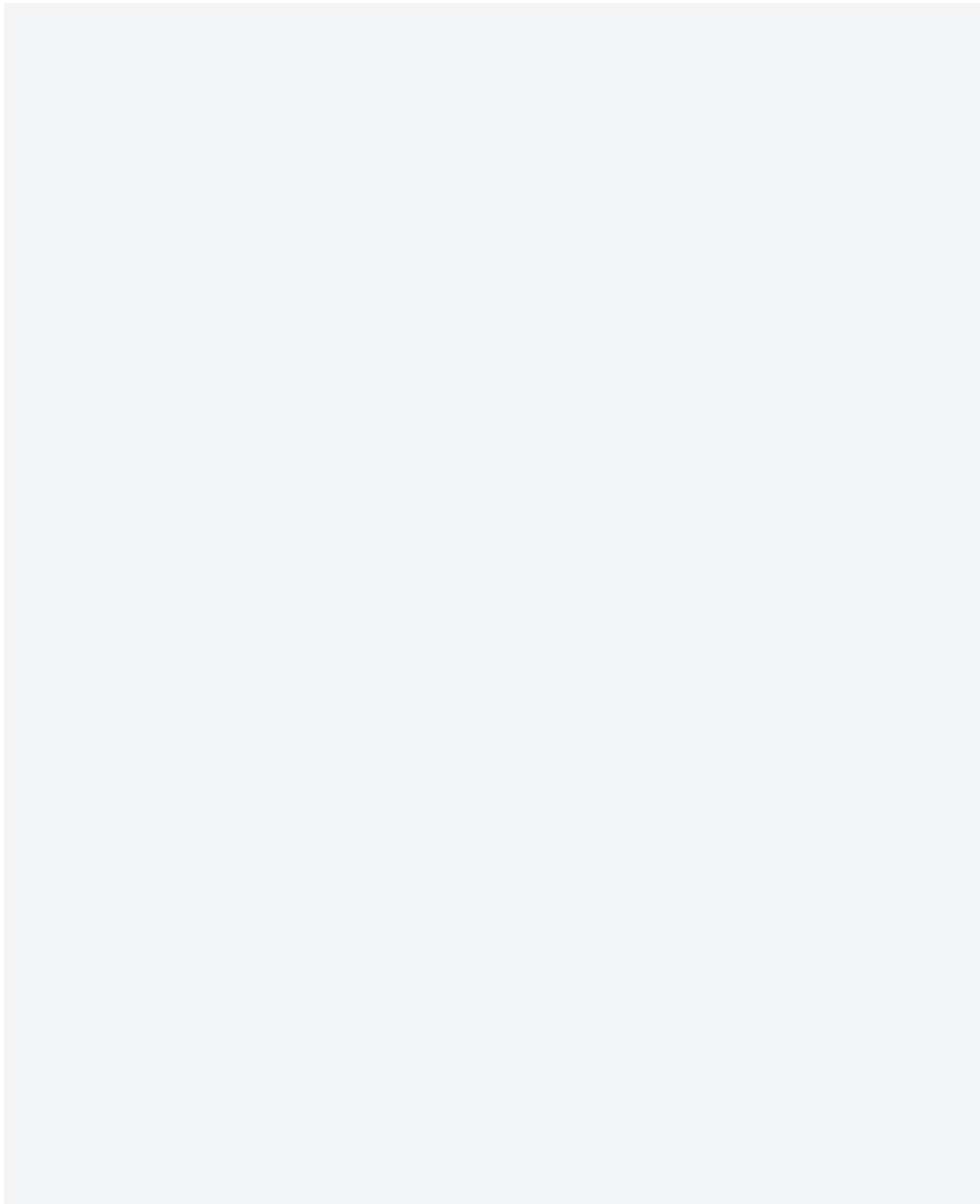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 코치들의 자리 잡기

“코칭을 만났다는 건 엄청난 특권,
각자 코치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지속해서 깨어있기를”

스타들의 빛나는 무대 뒤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헌신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조력자라 일컫는다. 지난 11년간 (사)한국코치협회의(이하 협회) 부회장과 이사를 역임했던 안남섭 코치와의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 협회의 발전방향과 더불어 다시금 부활하는 지류 매거진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들어보자.

글, 사진 백충호(KPC)





협회에서 9년 간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 2년, 부회장 9년, 총 11년 동안 코칭의 파워를 직접 목도하며 협회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특히 박정영 코치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화 작업을 진행했다. 쉽지 않았지만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럼 가장 아쉬운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코칭이 처음 도입되는 시점에 나 또한 코칭을 학습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변화의 동력으로서의 코칭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젊은 코치들과 그 일을 함께 일구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급격히 다가온 언택트 시대에서 협회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면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의 통합이 주축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접목하려는 코치들의 발 빠른 대처가 전제된다면 향후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치 개개인이 시대를 앞서기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코치는 코치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인증코치 자격 취득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칭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코치다운 삶이 뒷받침해야 코칭 효과가 나타난다. 반짝 스타가 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다양한 수련과 기법을 활용하여 진정한 코치로 거듭나기를 부탁한다.

협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집중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한국코치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1만 명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시대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코치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세상의 변화 흐름에 한 발자국 앞서기 위한 코치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협회 또한 전략적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K-방역, K-pop처럼 K-coaching을 기대해본다.

8월부터 웹진으로 발간했던 소식지가 지류 매거진으로 발행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류 매거진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 디지털 시대이지만 아직은 아날로그 형식의 인쇄 매체가 지닌 파급력이 크다. 이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코칭 보급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지류 매거진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트렌드는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류 매거진은 온라인이 놓치고 있는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함께 반드시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협회 회원들의 연령별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다양한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나는 40대 중반 코치들이 젊은이들과 장년 세대들을 잇는 링커역할,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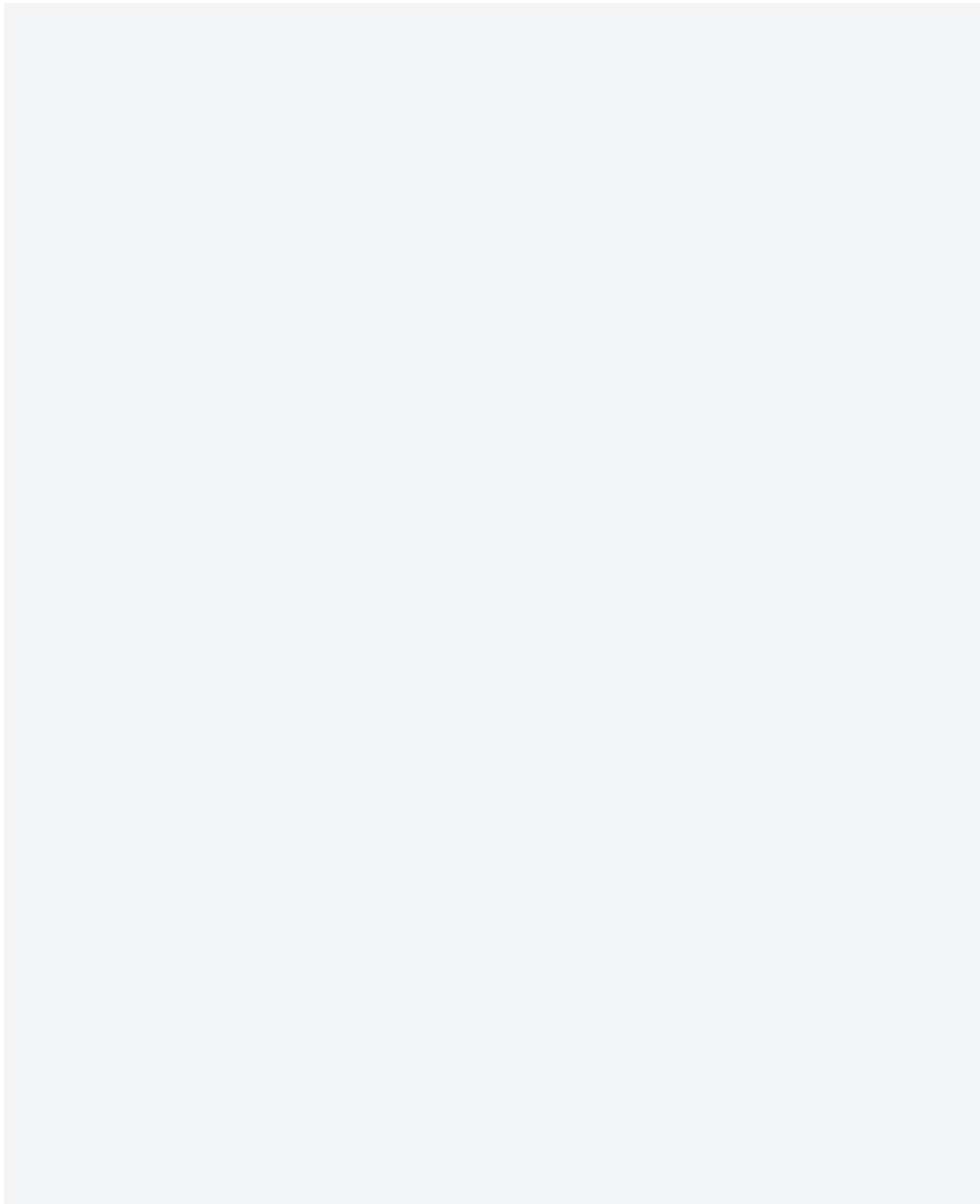
매거진 재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조언과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류 매거진은 표지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칭적 관점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 내용도 좋을 것 같다. 이왕이면 영문판을 시작으로 다양한 외국어판으로 확장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내용을 잘 어필해주기 바란다.

협회 회원들에게 격려와 도전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칭을 만났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다. 코칭의 힘은 지금도 다양한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각자 코치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지속해서 깨어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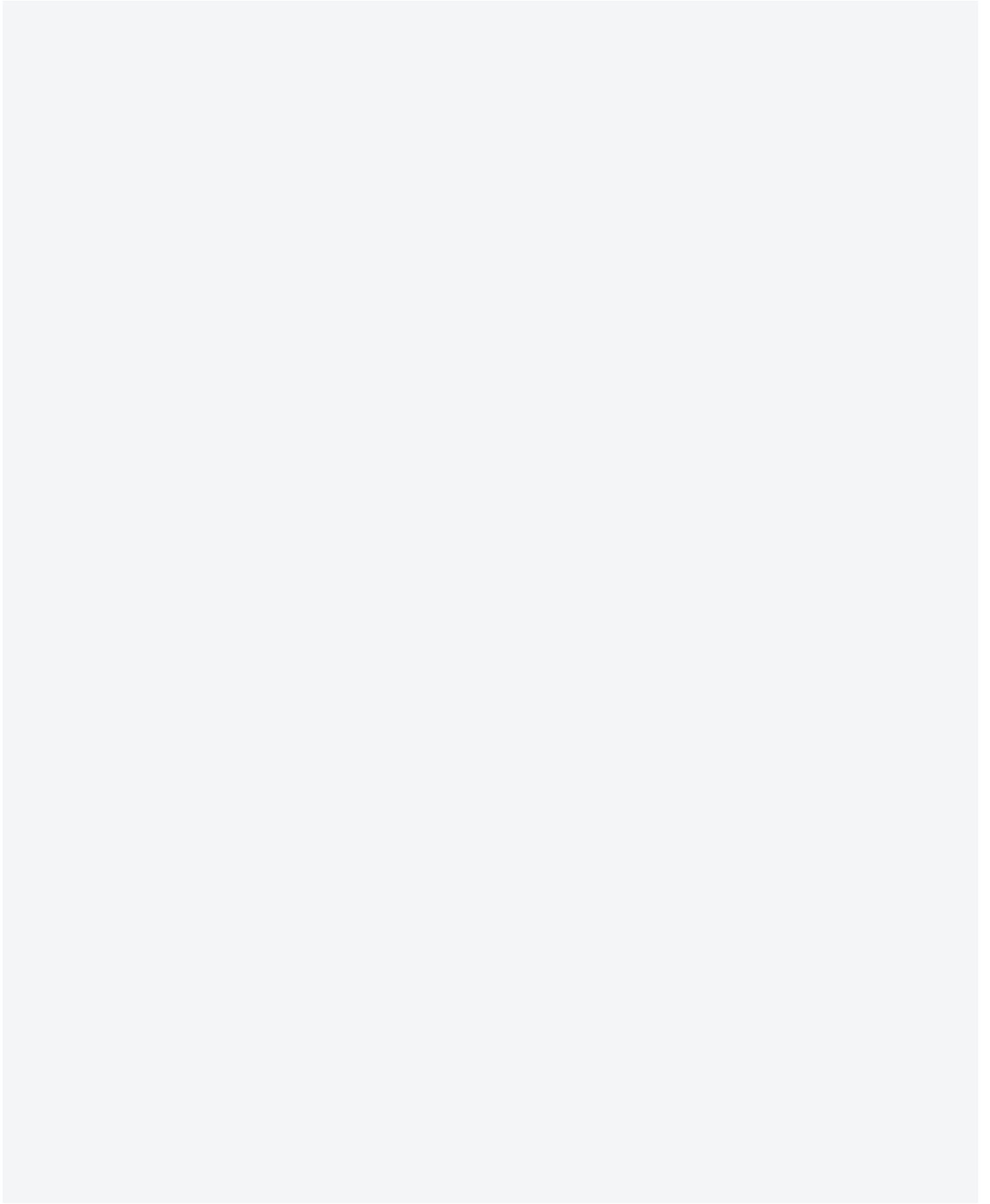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새로운 코칭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는데 일조해주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한다. ☺



KCA news

안앤지정숙 이사
- 역량강화위원장





(사)한국코치협회 제4차 이사회 스케치

“기대되는 코치들의 상호교류와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따사로운 햇살로 물든 봄날의 시작, 강남역 (사)한국코치협회에서 제4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고, 오전 10시부터 약 두 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각 위원회의 진행 상황 보고, 새로운 사업 안건 개진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고, 특별히 신규로 유입되는 회원들과 기존 회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글, 사진 백충호(KPC)

금년도 이사로 선출된 안앤지정숙 역량강화위원장은 향후 협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온 신입 코치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기회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유지보수교육’을 ‘자격유지성장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기별로 코치환영식을 개최하여 코치들 간의 상호 역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회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싶다는 힘찬 포부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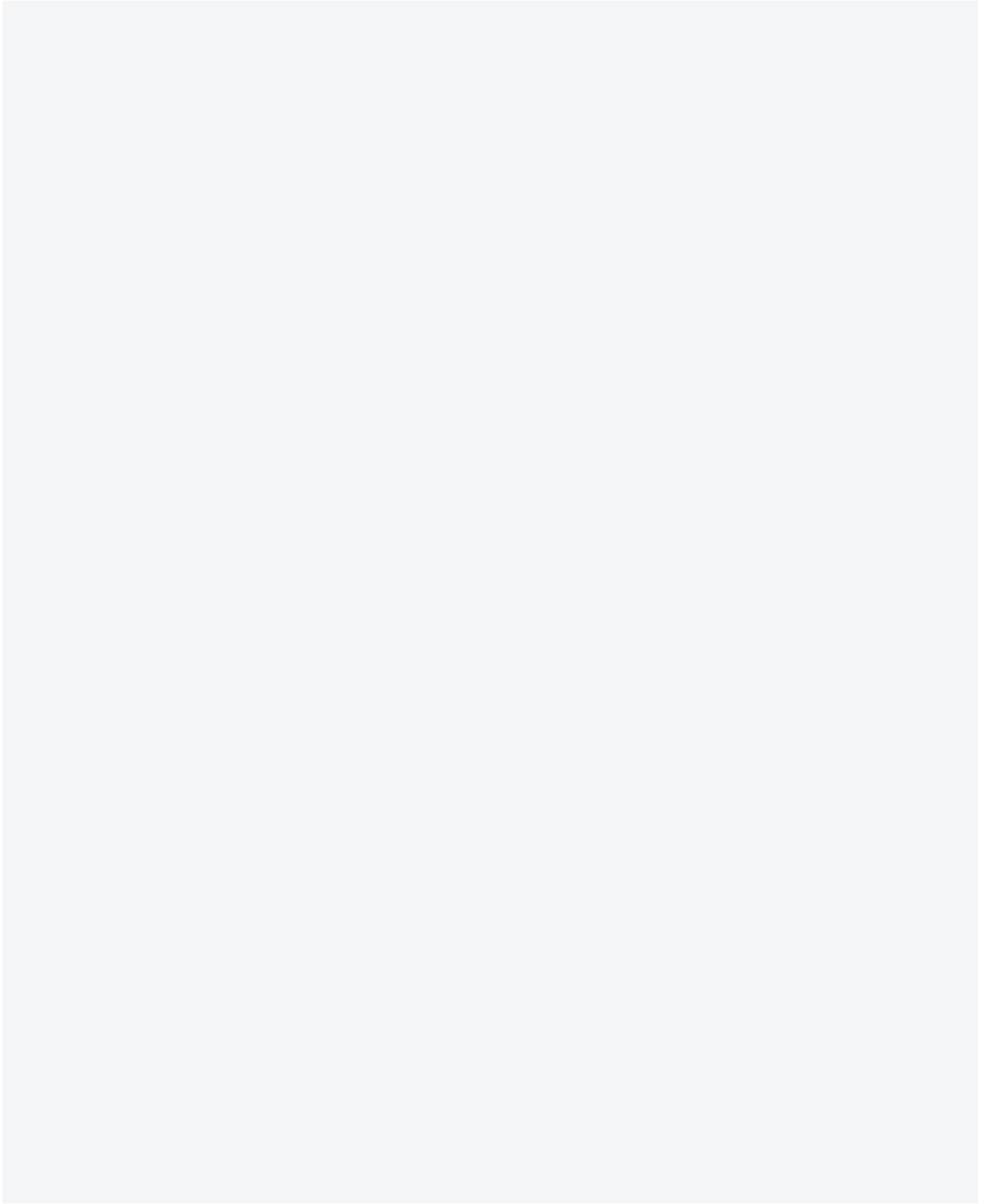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한편, 그동안 웹진으로 발간되었던 협회 소식지가 6월부터는 지류 매거진으로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안앤지정숙 이사는 “웹진으로 이어지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관점을 전환하면 ‘레트로(복고풍)’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하게 자기 성찰 시간이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부흥하는 새롭고 긍정적인 시도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매거진의 흥망성쇠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기에,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협회 소식을 알리고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special coaching column

COVID-19,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찾아온다

“코칭 시장의 변화, 1인 기업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곳은?”

언택트 시대는 곧 콘텐츠의 시대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은 1인 기업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마케팅 채널이다. 언택트 시대인 지금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올라오고 있다. 방법만 정확히 안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영향력은 넓힐수 있는 세계, 온라인 채널. 그 중에서도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블로그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정연택(KPC, 한국코치협회 마케팅2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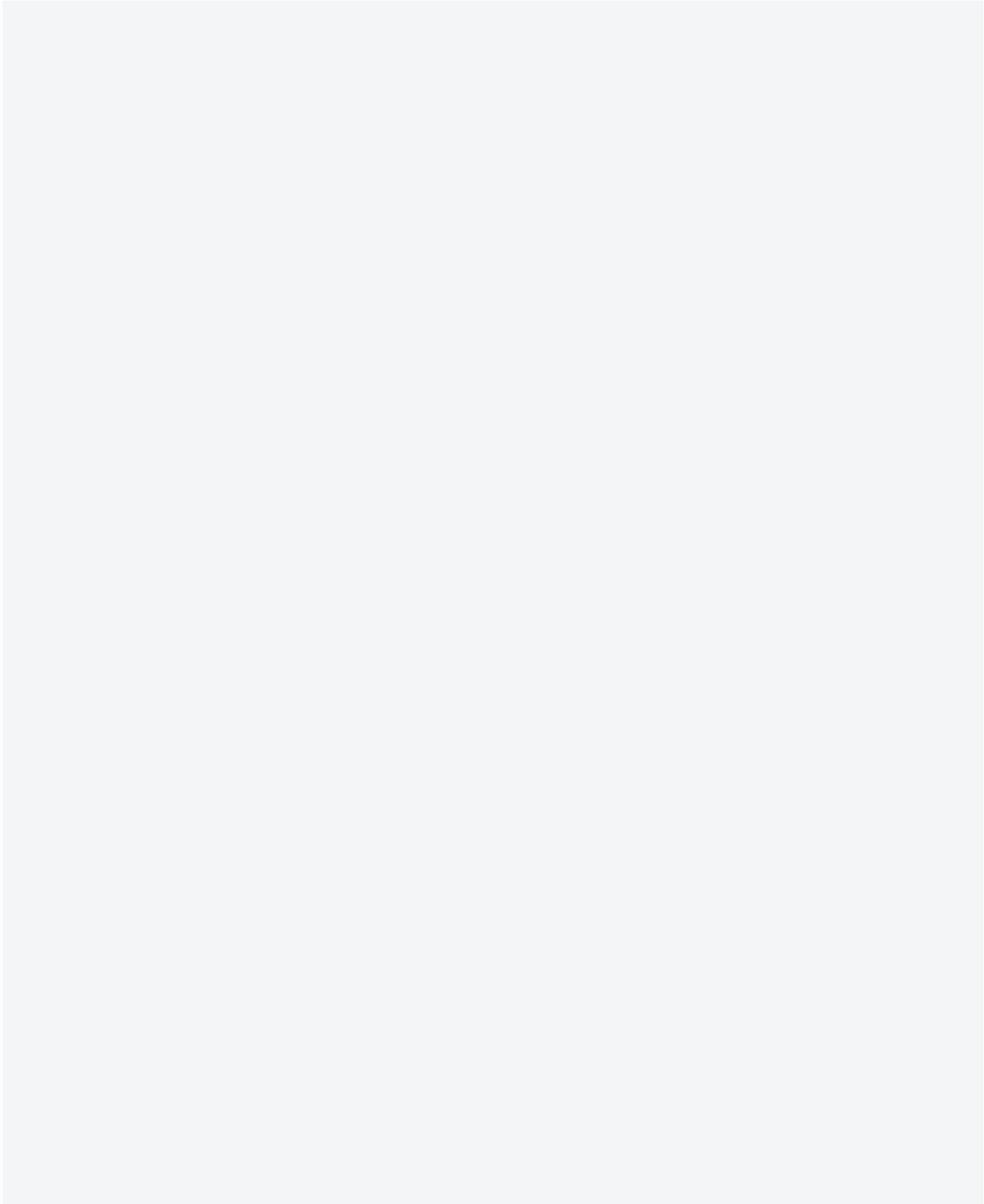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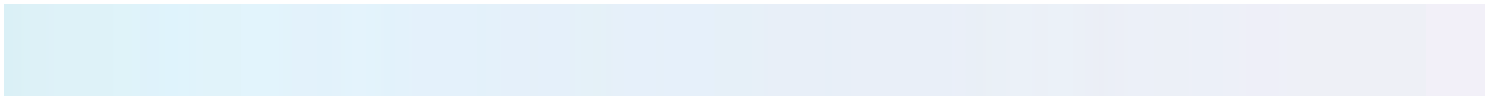


1인 기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1인 기업은 생각처럼 좋은 일, 멋진 일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디자인, 마케팅, 고객 관리, 영업 등 기업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코치, 1인 기업가 코치(이하 전문 코치)로서 활동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처럼 전문 코치로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코칭을 잘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고민, 코칭이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 고객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에 대한 고민, 고객을 만나더라도 그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고민이 함께 합니다.

코칭을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칭이라는 기법을 배우며 에너지가 상승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과 함께 진행과정 동안 나를 보다 가까이 마주하며, 전에 쉽게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죠. 코칭의 매력을



1인 기업
코치로 살아남기

블로그 마케팅?

코칭 잘하고 싶다

어떻게 내
코칭을 알리지?

디지털 노마드?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한껏 접한 분 중 이 코칭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코칭하거나, 전문 코치를 꿈꾸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코칭을 열심히 해야 전문 코치가 될 수 있어.'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코칭을 열심히 해야 한국코치협회에서 시행하는 인증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한 사람들이 인증 코치 자격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증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전문 코치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신입 코치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들이 '고객을 어디서 만나나요?', '고객을 어떻게 만들죠?'와 같은 질문입니다. '인증 코치 자격=고객 유입'이 아닙니다.

전문 코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 중 하나는 바로 '마케팅 역량'입니다.

1인 가구, 1인 문화가 늘어나고 실제 삶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을 위해 등장했던 언택트 문화가 COVID-19에 의해 더욱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된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 온라인의 세계와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온라인 마케팅은 거의 필수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방법 중 SNS 마케팅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죠. 1인 기업가에게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금전적 비용 없이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블로그 마케팅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면서 '네이버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설부른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의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 사업의 고객 범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목적과 구글을 이용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할 때, 구글을 통해 찾으시나요.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 찾으시나요? 네이버를 이용할 때는 어떤 상황이고, 구글을 이용할 때는 어떤 상황 인가요?

구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문 지식, 더욱 정확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네이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상과 연결 지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코칭을 제공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블로그는 아직도 강력한 마케팅 채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플랫폼의 자유도와 누적된 콘텐츠로부터 오는 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글을 베이스로 이미지, 영상, 링크,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가지지 못하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의 휘발성이 강한 페이스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누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의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블로그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케팅 역할을 하는 '패시브 마케팅'이 되어 줍니다. 1인 기업 코치를 꿈꾸는 코치님들, 아직도 블로그 시작 안 하셨나요? ☺

coaching issue inside

“코치 자격 국가공인화, 이슈 인사이드”



(사)한국코치협회가 인증자격의 공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인자격으로의 전환 타당성을 검토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2019년 4월, 국가공인자격증 추진관련 전담팀(TF)이 꾸려졌고, 이후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수렴하여 같은 해 6월 상설위원회로 승격되었다. 2019년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추진준비위원회(TF)'를 시작으로 현재(2020년)는 한민수 코치가 2월부터 위원장을 맡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글 백중호(KPC)

1.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의 전환은 무슨 뜻인가?

현재 협회의 코치인증자격은 민간자격이다. 만약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될 경우 협회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 자격과 유사한 관리 및 운영수준으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해 국가가 협회 자격을 우수한 민간자격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코치 자격의 사회적 위상과 접근성이 증대

되고, 코칭문화 확산이라는 협회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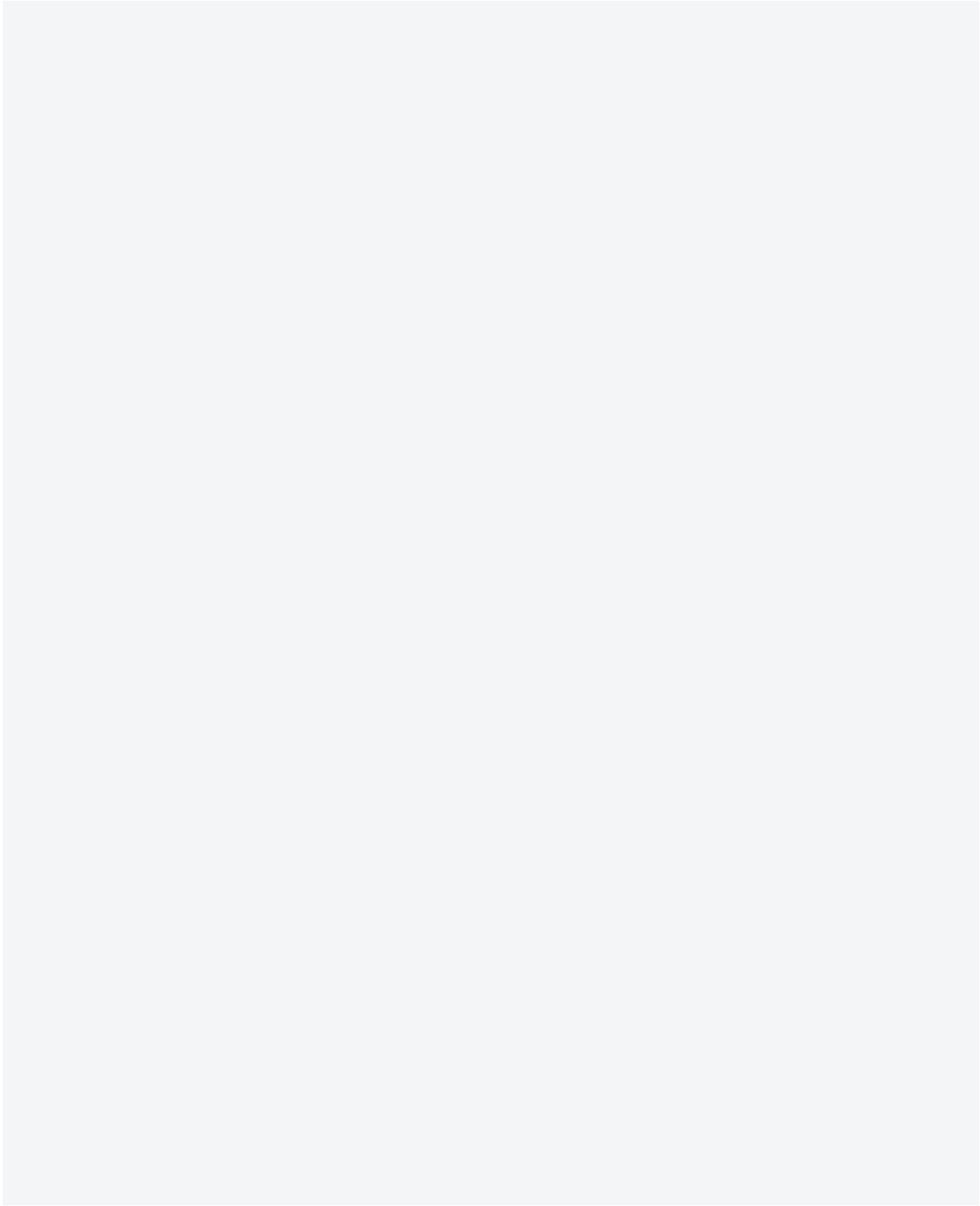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의 승격이 국가의 지휘 아래 놓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5년 주기로 주무부처에서 점검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의 통제는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지도 확산을 고려한다면 이점이 더 많다. 다만 현행 운영 및 관리방식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현재 운영 및 관리절차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가장 큰 특징으로는 현 인증제도 및 운영절차의 표준화 작업이 불가피하다. 현재 협회의 자격인증 프로세스는 협회가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개별 50시간의 실습을 완료한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차례로 통과하면 인증자격의 첫 단계인 KAC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공인을 추진하여 검정시험으로서의 공신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표준과목'을 선정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표준과목을 공부하





여 누구나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표준과목이 개설되면 '교육 이수시간'과 '코칭 실습시간'은 지원요건에서 제외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구조로 변동된다. 연수 기간에는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최종 자격을 승인받게 된다.

4.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201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담팀(TF)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총 622명이 회신하였고, 회신 내용의 약 98%가 국가공인자격 추진에 긍정 의사를 표명했다.

조사방식은 5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1점(해서는 안 된다)에서부터 5점(꼭 해야 한다)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포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3점(도움이 될 것이다)이 10%, 4점(지지하여 도움을 주고싶다)이 28%, 5점(꼭 해야 한다)이 6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2%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5. 국가공인화가 실현될 경우 어떠한 유불 리가 있는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되면 코치 자격증의 인지도 상승효과와 더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 공공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코칭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코치들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코칭산업의 양적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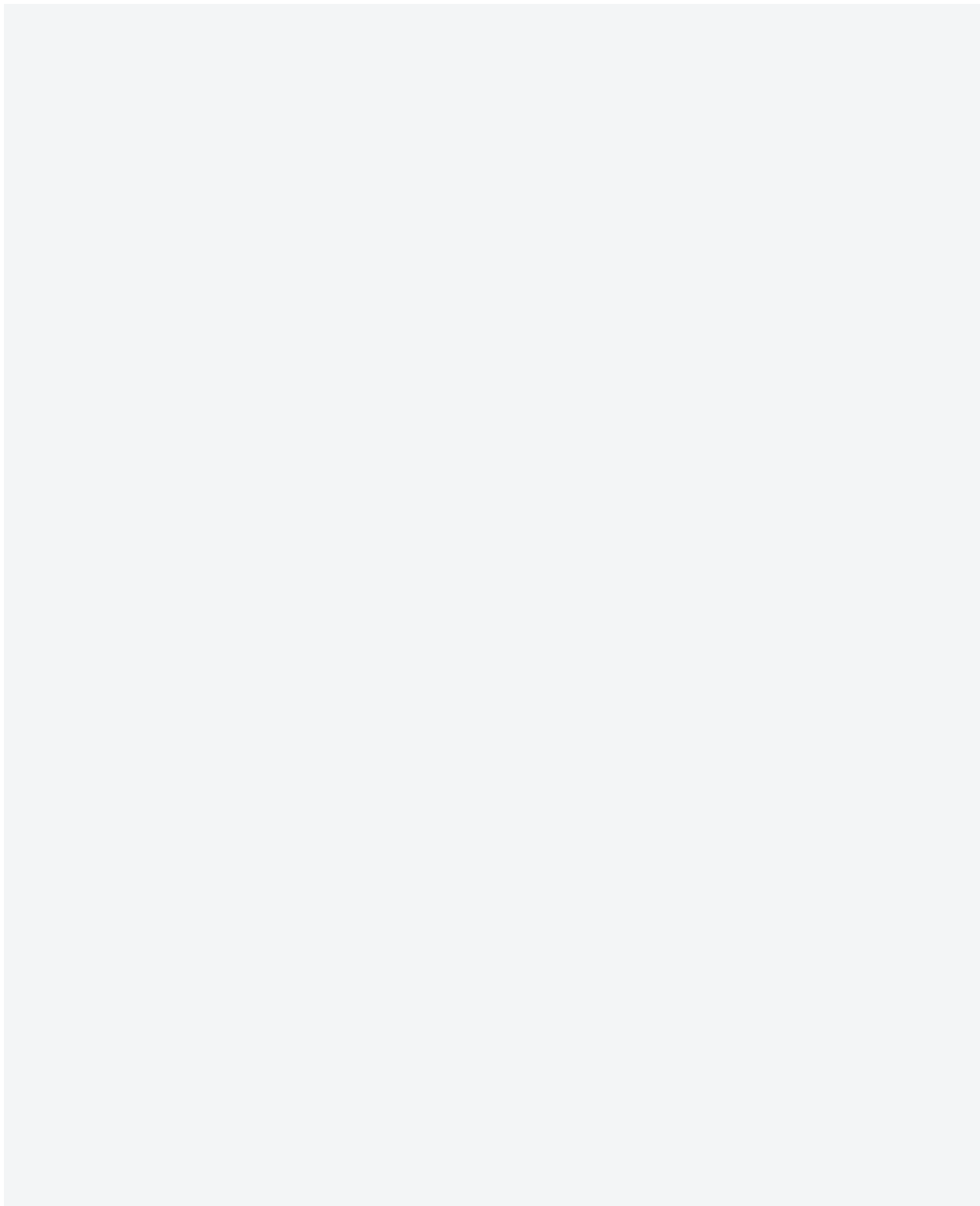
그러나 코치 자격의 인증 및 운영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적 제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과목 표준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이 적지 않다. 연수기관도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조와 의견조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공인화를 이뤄내 한국코치협회의 새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6. 국가공인으로 승격된 민간자격의 사례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브레인트레이너, 행정관리사, SMAT(서비스경영자격) 등이 있다. 브레인트레이너의 주관기관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이며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다. 행정관리사의 주관기관은 행정관리협회이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SMAT(서비스경영자격)의 주관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이며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협회의 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되면 주관기관은 한국코치협회가 되고,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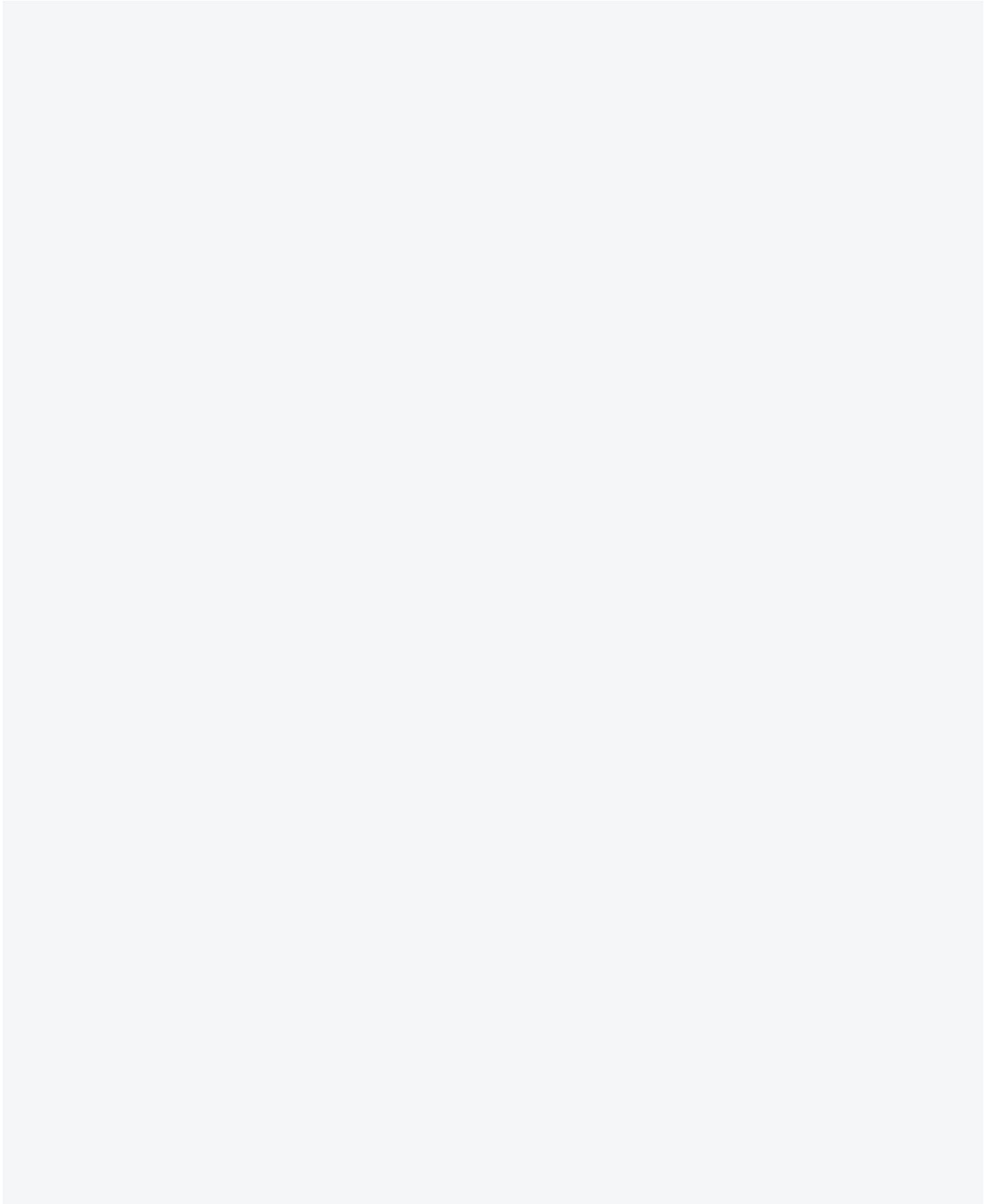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coaching in company



“코웨이 조직의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 코칭”

2019년 코치문화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웅진코웨이를 방문하였다.
 이들의 기업 내 코칭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코칭을 접목한 결과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글 진나해(KAC, 홍보위원회 마케팅1국장)
 사진 고흥숙(KPC, 코웨이 코치)







▶ 코웨이 소개

코웨이는 1989년에 창업한 회사로 가정에서 비데, 청정기, 침대, 의류가전까지 다양한 렌탈분야를 처음 소개한 회사이다. 현재는 화장품 분야까지 확산하여 전반적인 렌탈 및 생산, 서비스 고객 관리 영업 등 모든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영업과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직원과 고객 간의 관계 형성이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현재는 코칭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과도기이며, 관리자 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코디)까지도 코칭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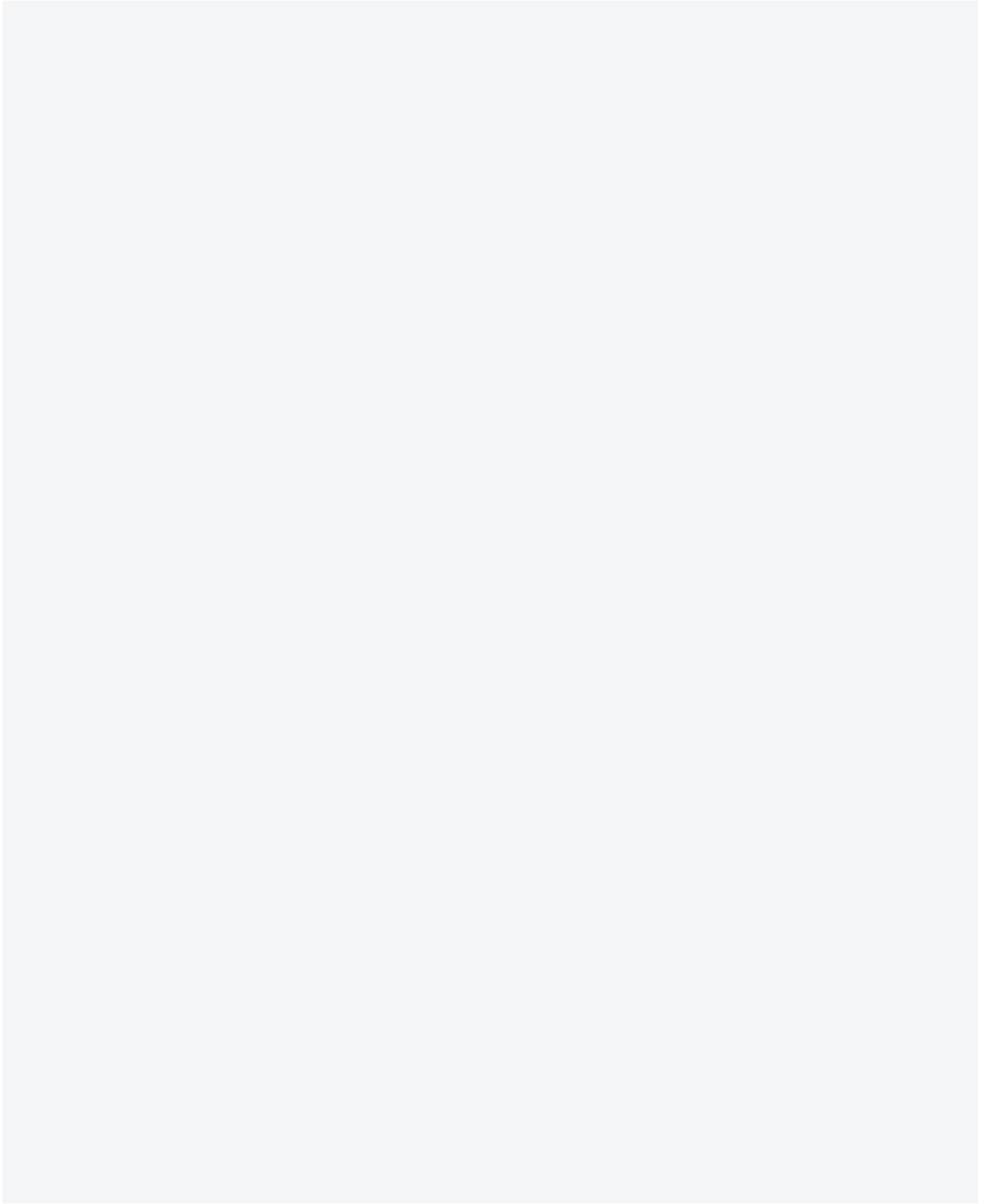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 코웨이 코칭의 역사

코웨이에 코칭이 도입된 지 약 10여 년이 흘렀다. 타 기업보다 발 빠르게 도입했으나 관리자위주의 코칭교육만 운영했고, 사실상 컨설팅 및 서비스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들어 코칭으로 방향성을 바꾸어 코칭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 코웨이의 코칭 도입 배경

서비스와 영업을 함께하는 조직이다 보니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조직 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어려움은 늘 존재했다. 성과는 훌륭한 조직 관리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잘 알기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저성과 조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은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지 못했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코칭을 접하게 되었고,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바탕으로 조직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코웨이에서 코칭을 통한 주요 활동 소개

지역별로 활동은 다르지만 큰 범주로 나누면, 저성과 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교육이 있고, 동호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코칭 스터디가 있다. 각 대상별로 기초, 심화, 역량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코웨이만의 비즈니스 코칭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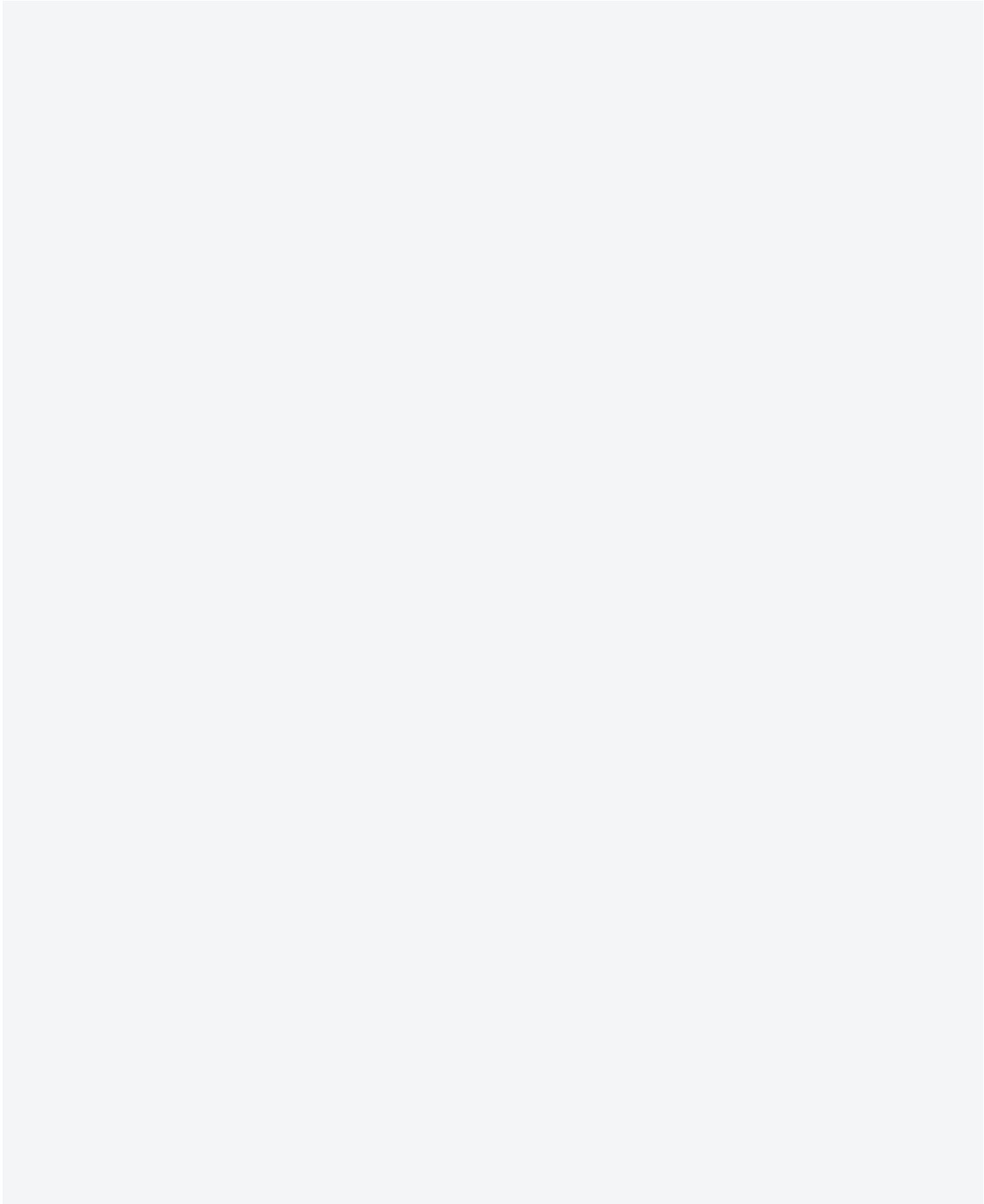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처음 코칭이 도입되었을 당시, 조직 관리자는 우리 조직의 내부적 이슈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 코칭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컨설팅이 보여주었던 수동적인 지시, 이로 인한 단발적인 효과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리자들의 자각과 요구가 생겼다. 개인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코웨이의 비즈니스 코칭은 직원들이 자신의 이슈를 능동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몰랐던 방법을 찾게끔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자연스레 조직의 성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지속적인 코칭 요청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코웨이의 앞으로 비전과 목표

현재 코웨이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자기개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코웨이 코칭 동호회’는 기업 내에 코칭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동호회에서는 구성원들끼리 전문코치 자격을 취득하여 멘토코칭과 코치더코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국장부터 내부강사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들이습득한 코칭스킬을 업무에 접목하며 현장에서 코







칭의 힘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기업 내 KPC 인증코치가 한 명이다. 바라기는 올해 10명 이상의 KPC를 양성할 예정이며, 이후 KPC 인증코치를 기반으로 코웨이 자체 자격인증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내 코칭 문화 확산을 넘어 코치 역량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코칭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에 한마디

코칭 도입을 가장 망설이는 점은 '바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과까지의 시간은 걸릴지언정, 코칭은 단연코 더 오랫동안 그 효과가 유지된다고 자부할 수 있다. 컨설팅이나 강의는 단발적인 알아차림을 통한 개선 효과이기에, 그 효과는 즉각적일 수 있으나 지속성은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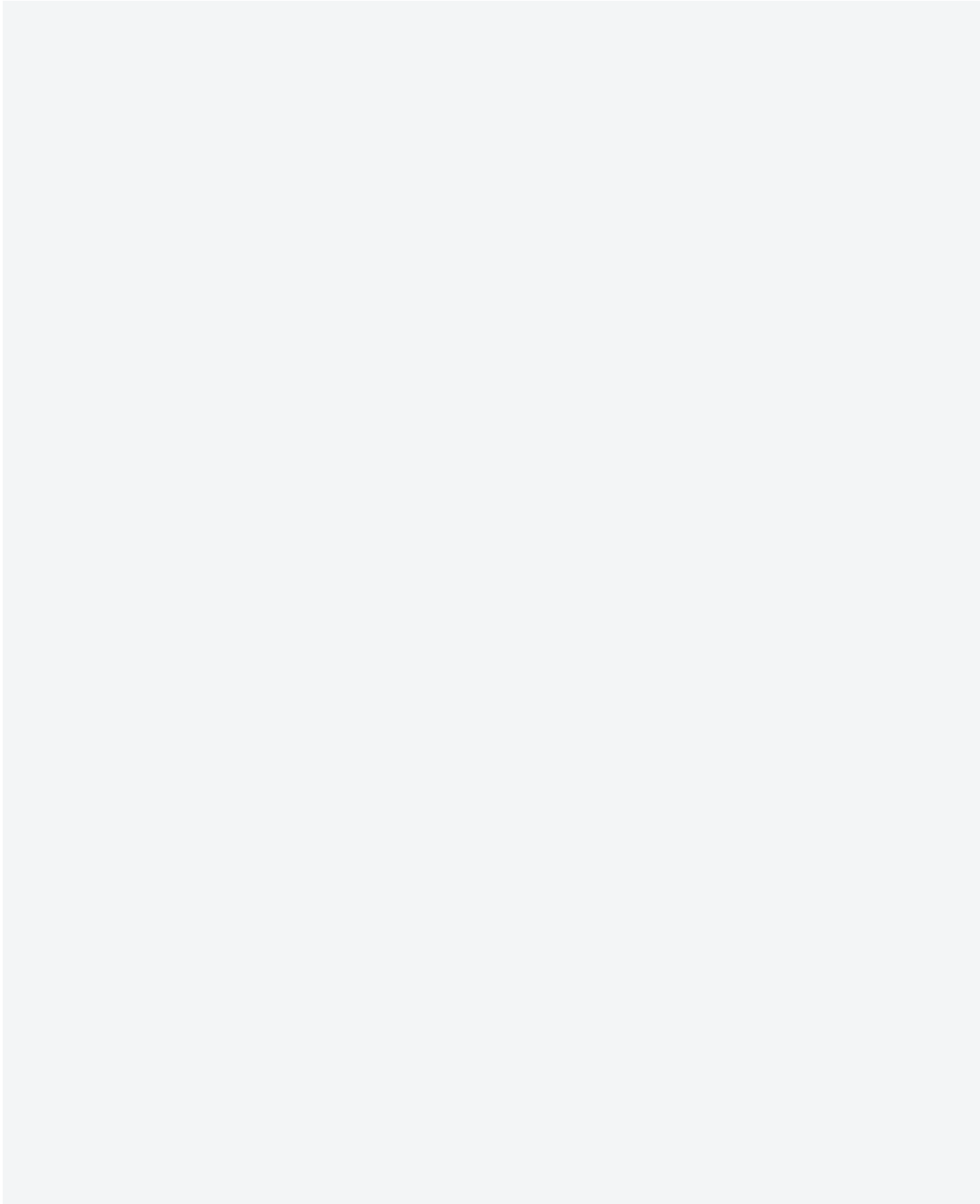
하지만 코칭을 기반으로 한 조직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조직이 탄탄하게 오랫동안 지속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코칭 문화 도입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코칭협회 바라는 점

지방에 거점을 둔 코치들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겠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코칭에 대한 정보의 장이 적고, 자기계발 및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렇기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각 지부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길 바란다.

코로나로 인한 이슈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코치들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의 관심 또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coaching committee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한 코칭이 되길 바라는, 홍보위원회”



한국코치협회는 코칭을 사랑하는 협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성장하는 공간이다. 그중, 소소한 재능을 기부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이달에는 웹으로 발행된 소식들을 다시 잡지로 재발행하기 위해 노력한 홍보위원회위원들이 활동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들어보자.

글, 사진 김철(한국코치협회 이사, 홍보위원장 위원장), 김삿별(kpc,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정연택(kpc, 홍보위원회 마케팅2국장), 진나하(kpc, 홍보위원회 마케팅1국장)

사람을 섬기는 코치, 코치를 위한 코치

(사)한국코치협회 이사 / 홍보위원장 김 철 코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코칭을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수직적 관계에 익숙한 우리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바로 이런 코칭의 정의와 사람은 모두 온전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창의적이라는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사)한국코치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위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자 한다. 참고로 홍보위원회는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하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

김철

現 한국코치협회 이사

現 한국코칭연구소 소장



삶의 균형을 위해 이야기하는 코치

안녕하세요, 편집국장 김삿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저마다의 진한 향기가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게 되는 분들의 은은한 향기로 채워지는 공간을 함께하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의 맞춤균형을 위해 코칭합니다. 2020년 홍보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코치님들의 신념을 알아가고 더불어 코칭을 널리 알리는 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삿별

現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

現 한국코치협회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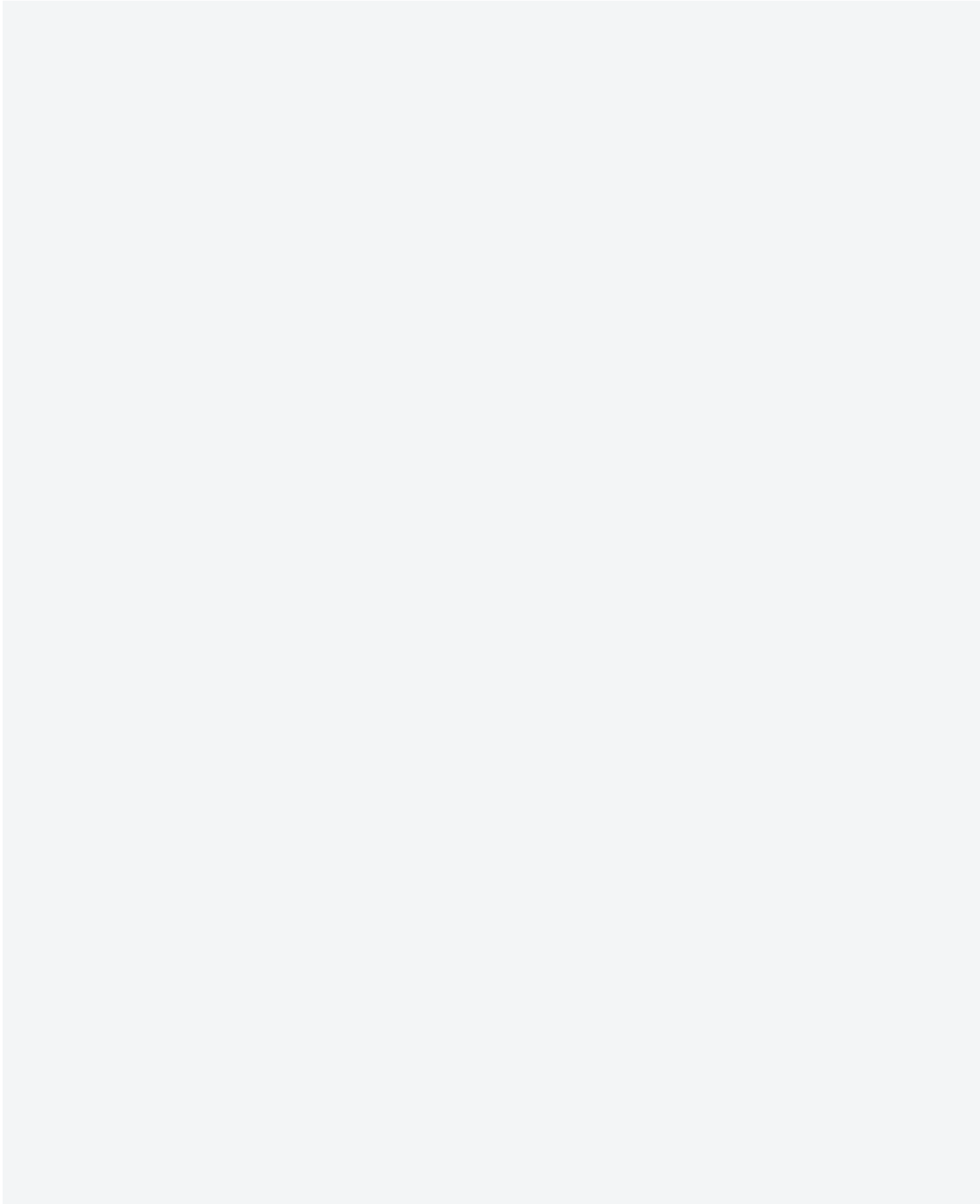
現 밸런스코칭랩 대표

現 국제공인 버크만 디브리퍼

現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現 국가공인 소비자전문상담사







행복한 성장을 만드는 코치

안녕하세요? 정연택 코치입니다.
 코칭,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파트너들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것, 더불어 나도 성장하는 것! 코칭의 매력 속에 폭 빠져 지내다 정신을 차려 보니, 이번 홍보위원회 마케팅 2국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코칭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산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택

現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 現 브랜딩이슈(branding is you) 대표
 現 한국코치협회 홍보위원회 마케팅2국장 現 ㈜HR교육컨설팅 전문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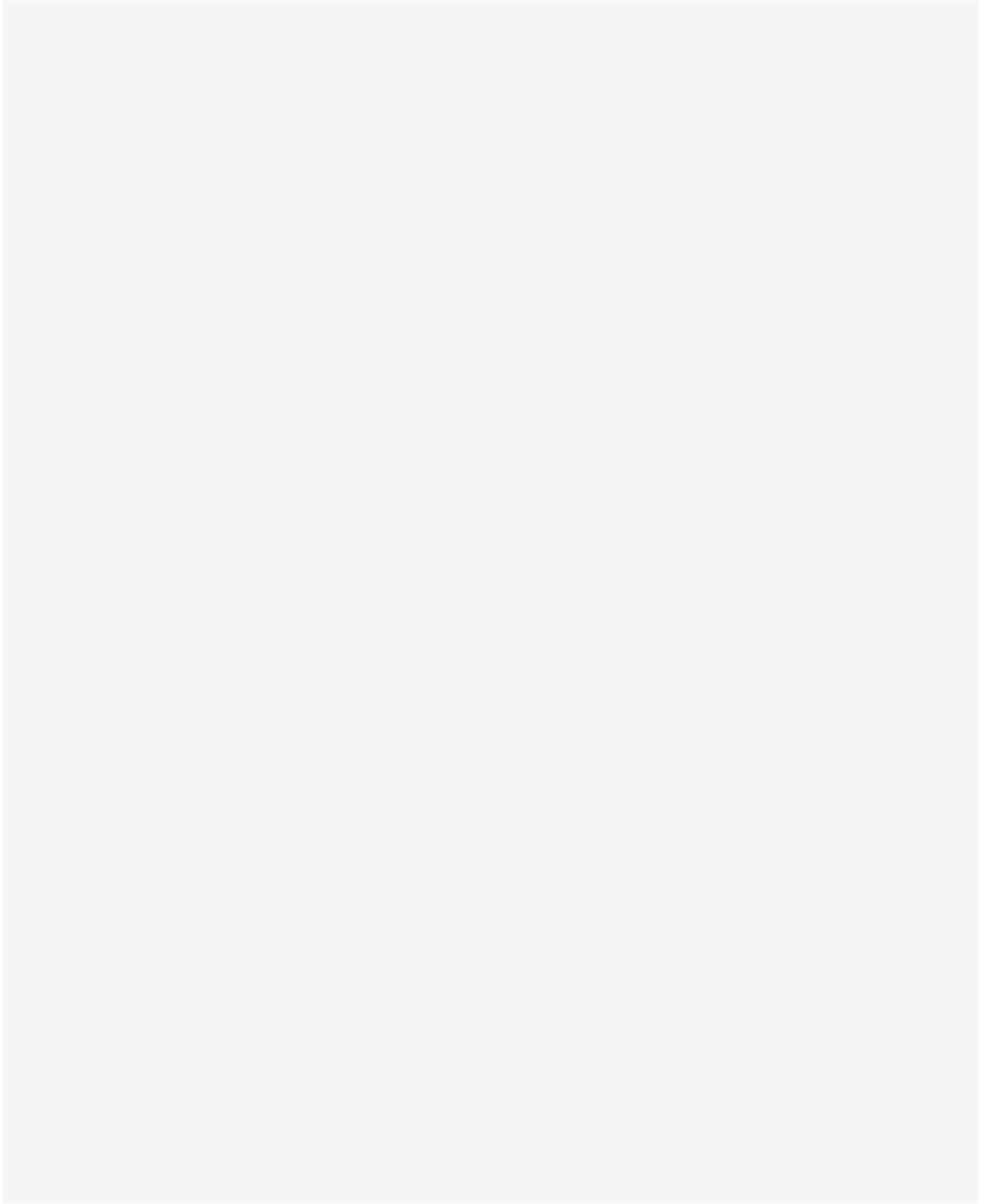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공감에 향기를 담는 공감코치

안녕하세요, 올해 홍보위원회 마케팅국을 섬기게 된 공감코치 진나하 국장입니다.
 공감은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공감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찾고 그 힘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사명으로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한국코치협회가 코치님들을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식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나하

現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AC) 現 오렌다(ORENDA) 대표
 現 한국코치협회 홍보위원회 마케팅1국장 現 청춘정거장, 유유기지 청년멘토





coaching blog journalist

“세상 속 다양한 주제와 코칭을 결합하며, 코칭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2020한국코치협회 홍보위원회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선발하였다. 코칭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블로그 기자단들과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함께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자 한다. 치열한 면접과정 끝에 합격한, (사)한국코치협회의 블로그 기자단의 포부를 들어보자.
글, 사진 코칭 블로그 기자단 편집부



권오연

안녕하십니까. 2016년에 코치로 입문하여 현재 KPC 코치 권오연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CS,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칭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코칭을 알리는데 기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설유진

저는 약 20년간 민간기업 경영파트에서 일해왔고 인사팀장으로 재직 시 코칭강의를 듣고 그 매력에 빠져직장인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며 KAC를 취득했습니다. 코칭의 매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진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퍼실리테이터 박진입니다. 여행과 퍼실리테이션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 인데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 성장하고 또 상대방을 성장시킬 수 있는 코칭을 좋아합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코칭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서로에게 코치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신예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나를 알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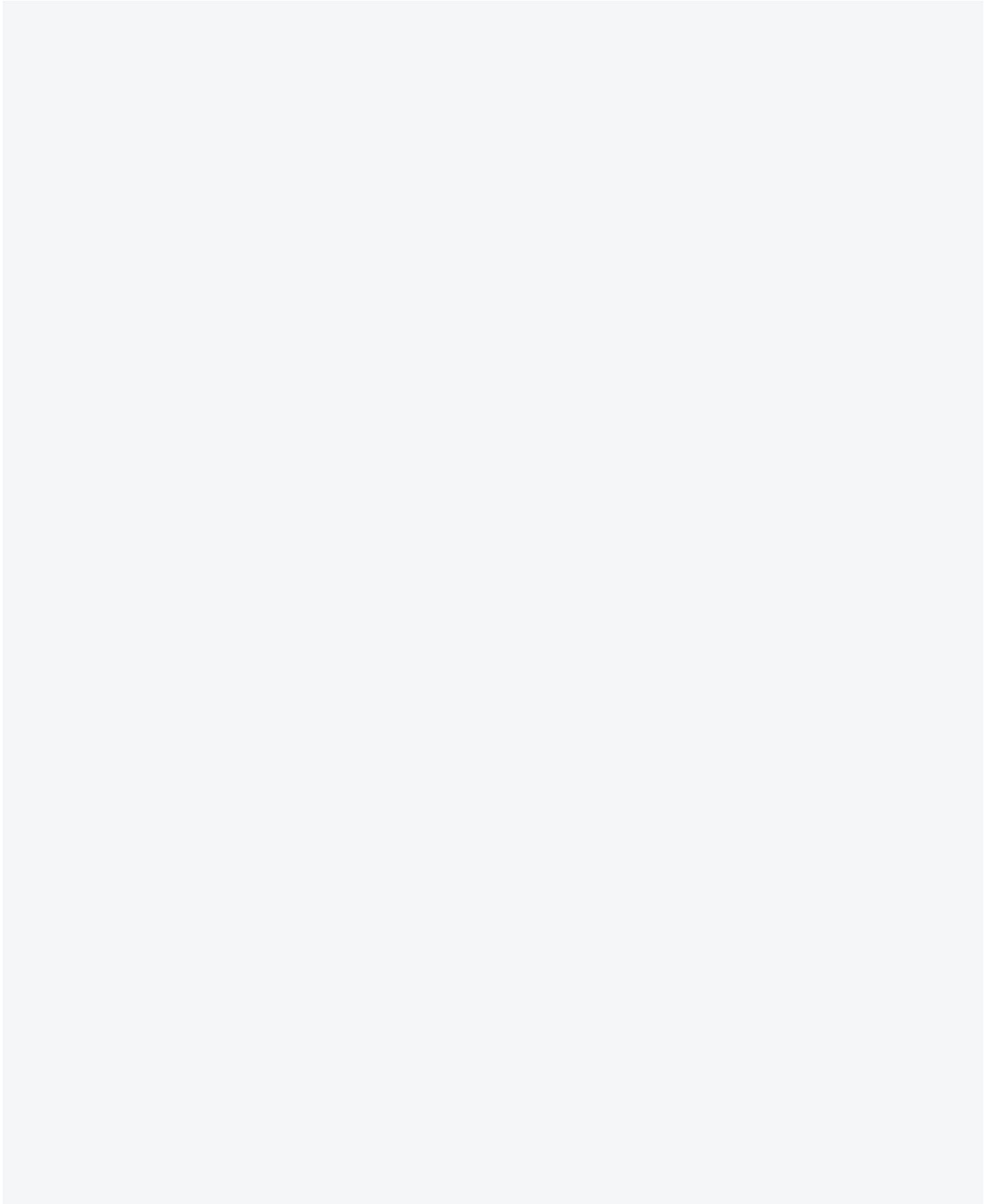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서혜숙

여러인물을 연기하는 Actor로 출발하여, 지금은 여러사람을 세우는 Director로, 여러사람을 코칭하는 Coach로써 우리의 세상살이를 담아내는 Creator 서혜숙입니다!



신원애

몇년전 지도교수님의 안내로 박사논문을 코칭으로 쓰게되면서 코칭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까지 유아교육과코칭의 절묘한 통찰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코치(KCA)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신은희

안녕하세요, 바람코치 신은희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마주하는 수많은 마음속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닌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온 마음으로 지지하기 위해 Breeze&co. 라는 사명으로 코칭마인드를 인생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코치협회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통해 코칭의 유익함과 의미를 보다 흥미진진하게 풀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에 훈훈한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예지

안녕하세요,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 형형하게 빛나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이길, 어두운 터널을 걷는 이들의 곁에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 진실함을 글과 코칭을 향한 시선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이경미

고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을 함께하는 코치자기 다음, 재능개발을 통한 삶에 집중과 목표달성을 지원합니다.



임태훈

한국의 코칭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낯것의 정보들을 가다듬어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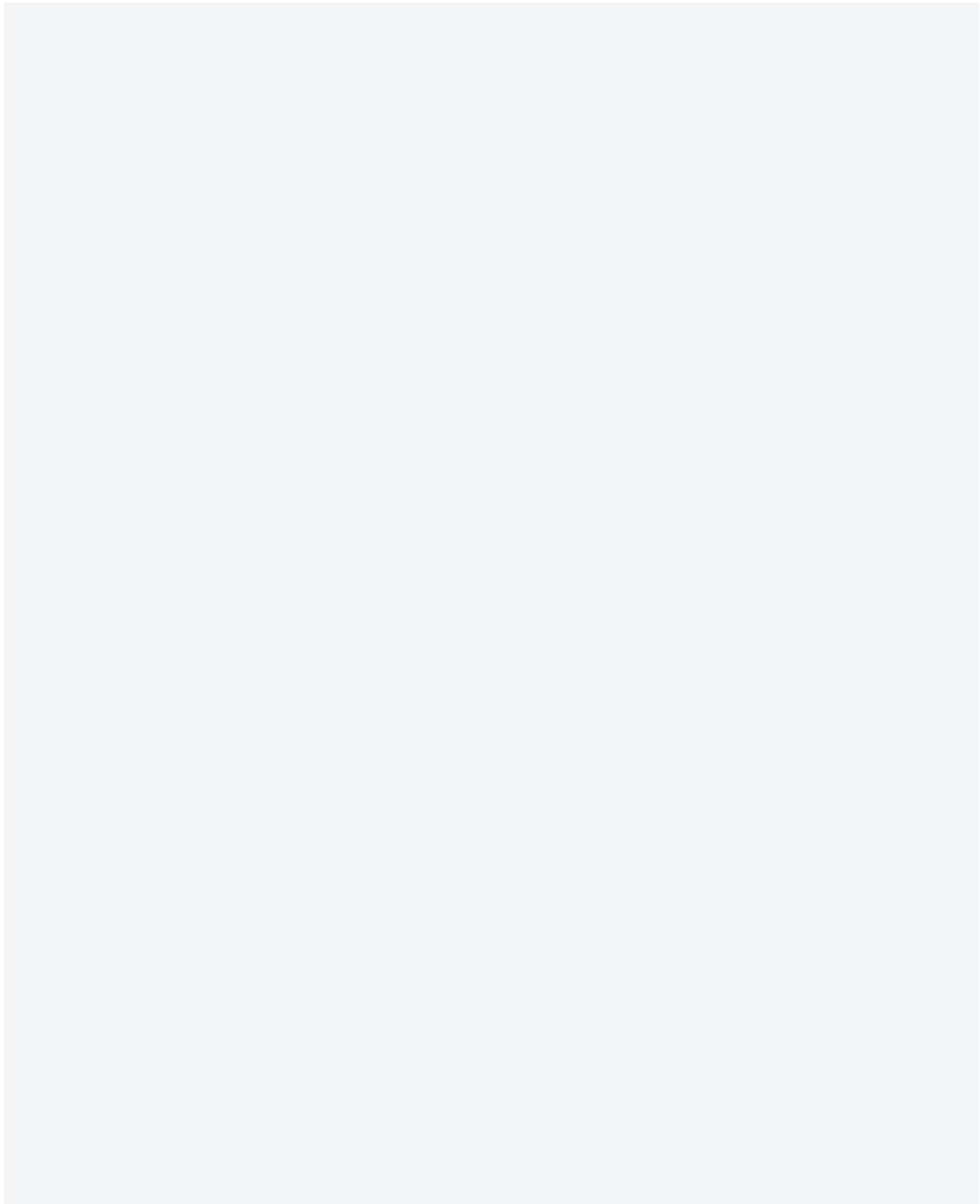
평소 관심이 있던 NLP를 상담과 접목 시키면서 코칭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연히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에게 청소년코칭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한 끝에 명상 상담과 코칭 치유를 진행하고 있다. 코칭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바람으로 올 해에 코치협회 자격취득과 영국의 RIT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



최은지

안녕하세요, 2020년도 한국코치협회 블로그기자단에서 홍보위원회 미디어국 당당을 맡게 된 최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년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1기로 입학하게 되면서 코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코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코칭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코칭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aching branch office

“대전지역 코치들의 플랫폼과 교류의 장, 한국코치협회 대전지부”

서울에 위치한 한국코치협회, 하지만 지역의 코칭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각 지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대전지부로 가장 먼저 달려가 보았다.

글 진나하(KAC, 홍보위원회 마케팅1국장)

사진 고원준(KPC, 대전지부 사무국장)



대전지부 소개 및 지부장님 소개

(사)한국코치협회 대전지부는 대전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지부라고 자부할 수 있다. 매월 만남과 배움의 장, 그리고 코칭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부장은 남윤주 코치이다. 대전지부 사무국장과 부지부장을 역임했고, 2019년 2월부터는 지부장으로 섬기며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지부만의 특별함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코치들의 역량을 공유하고자 매월 월례회 및 정기적인 모임을 개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배우는 다양한 코칭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회원 간의 활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역량강화 과정을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서울 못지않게 코치들을 위한 다양한배움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부의 비전과 활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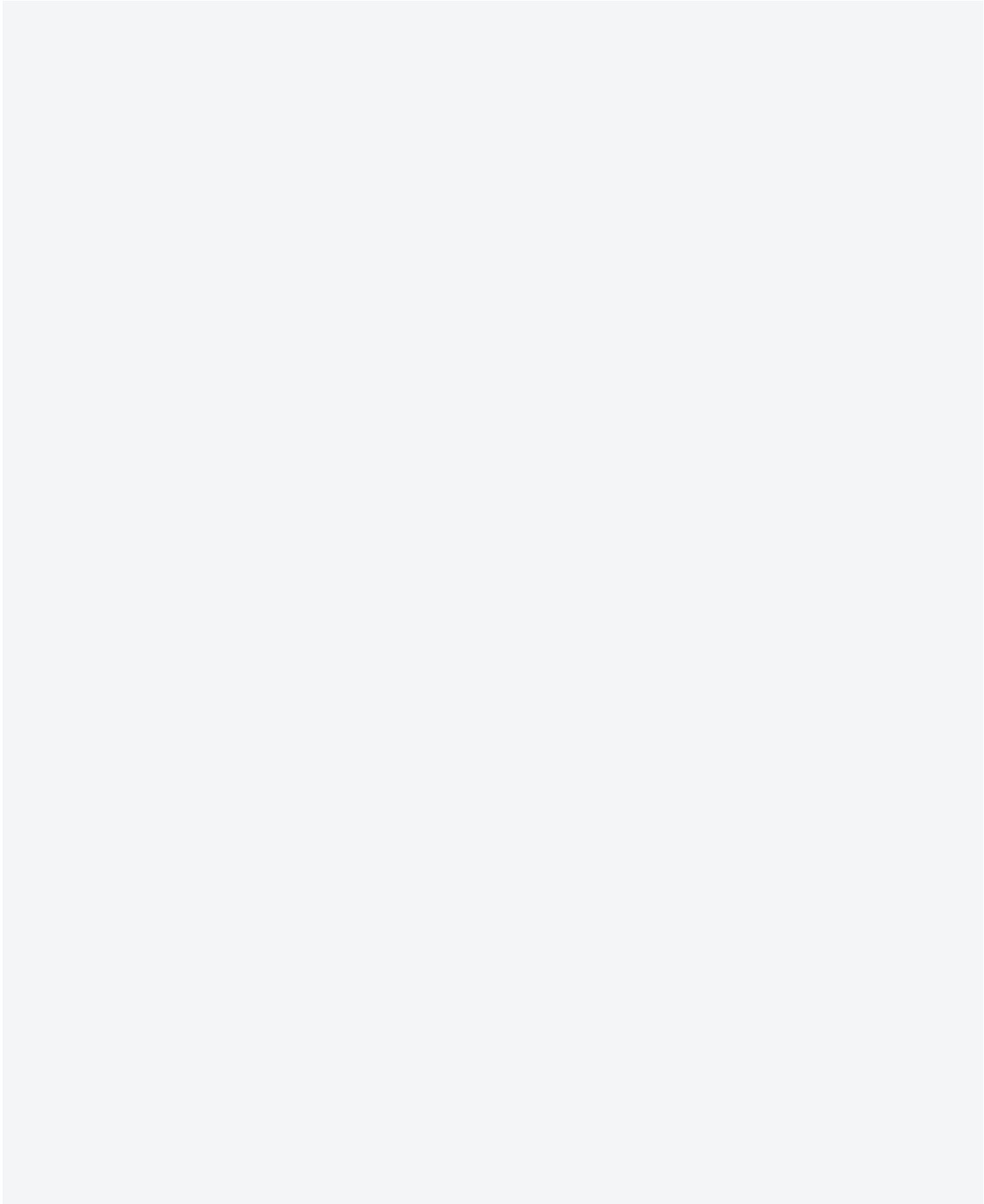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대전의 위치적 이점을 활용하여 역량이 뛰어난 코치들의 플랫폼이자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전지역에서 코칭을 교육하는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코치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사)한국코치협회에 대전지부가 바라는 점

지금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전지부와 소속 코치들의 성장을 위해 세심한 관심 부탁드린다.

대전지부에 주목하는 협회 회원 분들을 위한 인사

우리 대전지부는 항상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코치들의 역량이 빛날 수 있기에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소망한다. ●



Coach Presence

“그대의 마음 깊은 곳으로”

그대의 마음 깊은 곳으로
 걸어가고 싶다
 그곳의 어둡고 캄캄한
 습한 공기를 느끼고 싶다
 웅크리며 우는 아이가 있다면
 젖을 먹이고 다독이고 싶다
 화난 아이가 있다면
 등을 어루고 달래며
 가장 편안한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다

버려진 보석이 있다면
 손에 주워 고귀한
 마음 그릇에 넣어주고 싶고
 더러운 쓰레기가 있다면
 맘껏 말끔히
 치워주고 싶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을 심고
 든든함을 키우며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혀
 날마다 감격하는 그대를
 만나게 하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나는 그대의 마음 깊은 곳으로 걸어가고 싶다

전선영
 現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
 現 주와독서심리코칭 소장
 現 한국독서문화협회 대표
 現 한국문인 등단문인
 한국문인 신인작가상
 울목시민문학상
 저서 <주와> 시집

